

문화 서재

문화수서용



1

공연실험영상 교류상영회 <투란도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신국립극장이 제작한 오페라 <투란도트>의 실험 영상을 국립극장에서 만난다. 독창적인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알렉스 올레의 연출작으로, 2019년 7월 20일 촬영된 버전이다. 지휘자 오노 가즈시와 바르셀로나 심포니가 호흡을 맞췄다.
2월 8일 오후 3시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02.2280.4114

©Masahiko Terashi/NNIT

2

<한국 오페라 첫 15년의 궤적 1948-1962>
국내 오페라 초기 15년의 역사를 다루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한국오페라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첫 기획전으로, '한국 오페라의 여명과 태동'이라는 주제 아래 1948년 국내 첫 오페라인 베르디 <훈희>부터 1962년 국립오페라단 창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오페라의 발자취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고자 했다.
3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1층 070.7954.1338



3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
국립현대미술관과 중국미술관이 공동 기획으로 선보이는 근현대 수묵채색화 전시가 폐막을 앞두고 있다. 당초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 2024년 한국에서 개막했고 2025년 중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양국의 유일한 국가미술관인 두 곳이 소장한 수묵 작품과 현대 명작을 선별해 한국 편과 중국 편 각각 2부씩 전체 4부로 구성했으며, 총 148점의 작품을 통해 전통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과 수묵예술의 독자적 발전 과정을 조망할 수 있다.
2월 16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 02.2022.0600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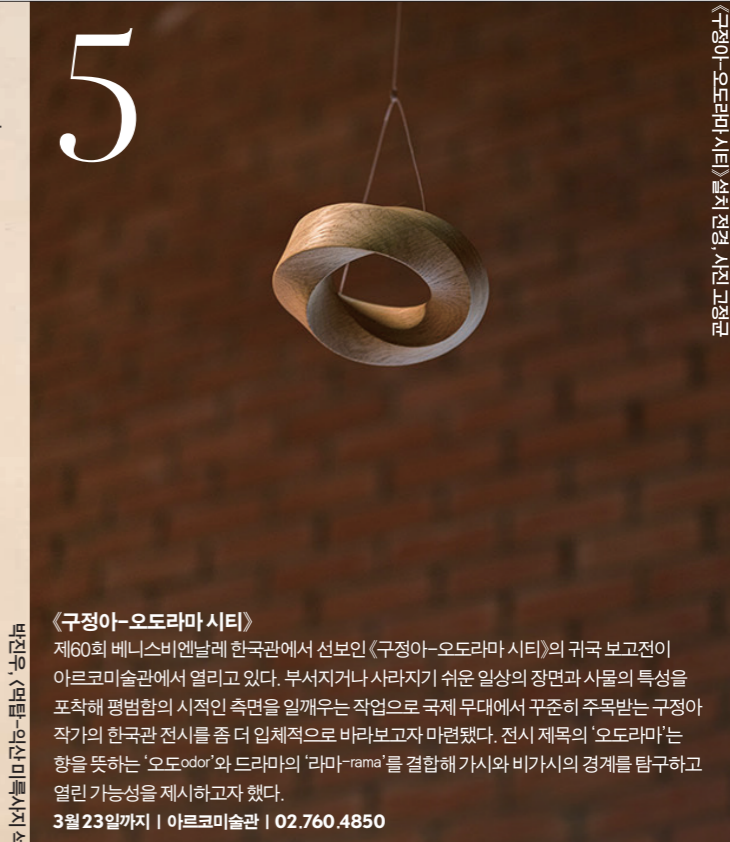
<박진우-Still Alive>
먹과 종이, 서예라는 전통 매체를 실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는 박진우의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시를 열며 주목받은 작가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마련했다. 신작 '먹탑' 시리즈를 중심으로 평면·설치 작품 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3월 2일까지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 1668.1352

박진우, <먹탑-익산미술사지 석탑>, 2024, 종이, 먹, 탁본, 182x151cm

국립극단 양손프로젝트 <파랑새>, <전략>
한국 연극계의 총아 손상규·양조아·양종욱, 그리고 연출가 박지혜로 이뤄진 양손프로젝트를 국립극단 '기획초청 Pick크닉'으로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다. 2023년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공연된 작품을 재공연하는 것. 양조아·양종욱의 합이 매력적인 작품 <파랑새>가 8·9·10·15·16일 무대에 오르며, 일베르 카뮈의 작품 중 '가장 찬란하고 심오한 걸작'으로 꼽히는 <전략>은 손상규의 1인극으로 13·14·15일 나흘간 만날 수 있다.
2월 8일부터 16일까지 | 명동예술극장 | 1644.2003



©김민지/국립극단



5

<구정아-오도라마 시티>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구정아-오도라마 시티>의 귀국 보고전이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부서지거나 사라지기 쉬운 일상의 장면과 사물의 특성을 포착해 평범함의 시적인 측면을 일깨우는 작업으로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구정아 작가의 한국관 전시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됐다. 전시 제목의 '오도라마'는 향을 뜻하는 '오도odor'와 드라마의 '라마-rama'를 결합해 가시와 비가시의 경계를 탐구하고 열린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3월 23일까지 | 아르코미술관 | 02.760.4850

<구정아-오도라마 시티> 설치 전경, 사진 고정훈

<자연과 인간 공존>
새해를 맞아 복합 문화 공간 노들섬에서 '자연과 인간 공존'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전시가 열리고 있다. 참여 작가는 최강소심·프로젝트0·김진선·김리아·양진희·OCamp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두 팀씩 전시를 선보인다.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시간, 공간, 순간, 인간(노들, 노을)'(김진선)과 '산은 꿈꾸지 않는다'(김리아)가 진행되며, 2월 13일부터 23일까지는 'Braided'(양진희), '유리그릇 Over Vivarium'(OCamp)이 다음 순서를 이어간다.
2월 23일까지(월 휴관, 세부 일정 별도 참조) 노들섬 노들갤러리 1·2관 | 02.2105.2446

가족 뮤지컬 <알사탕>
한국 처음으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가족 뮤지컬 <알사탕>을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책을 읽으며 상상한 캐릭터들이 눈앞에서 노래하며 춤추고, 그림책 속 마법 같은 장면들이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돼 관객이 상상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감동을 선사한다.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노원어린이극장 | 02.2289.3451

자연과 인간 공존

1관, 최강소심/김진선·양진희
2관, 프로젝트0/김리아·OCamp

2025 노들섬미술 기획전시
노들섬 노들갤러리 1·2관
A Series of 6 Relay Exhibitions
Jan. - Feb.

3년 연속 판매랭킹 1위!

알사탕
백희나 원작

2월 14일(수) ~ 3월 3일(일)
노원어린이극장

6

공간 큐레이팅 프로젝트 <더 코너>
 예술을 끌어들이는 기존의 공간도 새롭게 보여주는 벨!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간과 노들섬 내 서울시발레단 연습실이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북측 계단에는 전통 수묵화 기법을 청색 안료로 재해석한 김신형의 '가든 블루' 시리즈, 남측 계단에는 달향아리를 소재로 작업하는 최영욱의 '카르마' 시리즈가 들어섰다. 공연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후 1시간까지 공간을 개방하니, 티켓을 소지한 관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노들섬 공간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시각화한 이성욱의 설치 작품 <자연의 소리>를 만날 수 있다.
5월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노들섬 서울시발레단 스튜디오 | 02.399.1000



9

2024.9.5. - 2025.3.9.

특별기획전 공예로 짓는 집 SPECIAL EXHIBITION: CRAFTING THE HOUSE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 3층 EXHIBITION BUILDING 1 THE 3RD FLOOR

공예로 짓는 집

<공예로 짓는 집>
 서울공예박물관은 다양한 장르와의 실험을 통해 공예의 새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다. 현대 공예가와 전통 장인·건축가·디자이너 등 작가 20명(팀)이 실내의 건축 공간에 담긴 공예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다. 인간의 삶을 다루는 예술인 공예와 건축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짓고, 생각을 담아내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공간 '집'을 바라보는 건 어렵까.
3월 9일까지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 3층 기획전시실 | 02.6450.7000

고잉홈프로젝트: 라벨 교향악곡 전곡 시리즈 <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출신의 음악가와 한국을 제2의 집으로 삼은 음악가들이 만든 악단 '고잉홈프로젝트'가 올해 모리스 라벨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그가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한 작품을 재조명한다. 현대 교향악 작법과 기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며 20세기의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부상한 그의 음악을 2월부터 12월 중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연주할 계획. 이날 공연에선 '세에라자드' 요정 서곡을 시작으로 '머미 거위' 모음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1·2번을 들려준다.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512.5879

2025 GOING HOME PROJECT
RAVEL
 2.26. WED 서울 예술의전당
 7.9. FRI 고양아트센터
 7.20. SAT 서울 예술의전당
 7.20. SUN 서울 예술의전당
 12.27. SAT 양천아트홀
 12.28. SUN 서울 예술의전당

이성욱, 자연의 소리, 노들섬 설치전경 ©세종문화회관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콘서트>
 이날치·월드플레이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단체와 협업하며 공연 관객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올해는 예술감독 김보람이 2010년 안무한 대표작 <바디콘서트>의 15주년을 기념해 장기 공연을 연다. 현대무용 장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070.8098.9663

13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Uaa'oa'ia'ia'ia'ia'우아아오아오아아아아>
 하와이와 뉴욕에 기반을 두고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의 국내 공공미술관 첫 대규모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건축·영화·음악·문학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사회적 구조와 그에 내재한 기억, 역사, 심리적 흔적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선보여온 작가는 세계 유수 미술관을 돌며 개인전을 개최해왔다. 이번 전시는 이불(2021)·정서영(2022)·구본창(2023) 등 서울시립미술관이 이어온 동시대 한국미술 대표 작가 연례전의 일환이다. 작가가 2017년부터 천착해온 다중 연구 연작 <표해록>을 중심으로 디자인·평면·설치·영상 등 다채로운 신작이 펼쳐진다.
3월 30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3층 | 02.2124.8800

14

©서울시립미술관

<이 전시장은 몇 평인가?>
 주로 넓이를 표현하는 단위인 '평'을 정신적 단위로 재해석해 관계망과 유용성을 탐구하는 전시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예술의전당 안 지하보도를 활용해 만들어진, 청년 예술가를 위한 전시 공간이다.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02.3477.2074

12

뮤지컬 <명성황후>
 1995년 초연한 이래 관객과 평단의 사랑으로 30년을 이어온 뮤지컬 <명성황후>가 기념비적인 공연을 열고 있다. 초연 2년 만에 뉴욕 링컨센터에서 공연하고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차례로 진출하며 창작뮤지컬의 저력을 알린 작품. 22번째 프로덕션을 맞아 지난해 대구·부산에서 공연을 시작해 새해부터는 서울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명성황후 역 김소현·신영숙·차지연, 고종 역 강필석·손준호·김주택, 그리고 흥계훈 역으로 양준모·박민성·백형훈이 출연한다.
3월 30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02.2250.5900

15

KOD

깊어가는 겨울 한복판에서 을사년을 새로 맞이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우리 문화예술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싹을 새로 키우고 계신가요.

지난 1월, 서울문화재단의 새 대표직을 맡아 첫발을 내디디며 ‘신종모시 僉終謀始, 신종여시 僉終如始’라는 성어를 되새겼습니다. 신중하게 지난 일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했던 마음으로, 맡은 일에 초심을 잃지 않을 계획을 다시 귀중한 지면에 새겨 다짐합니다.

서울은 시민에게 일상 속에서 가슴 뛰는 설렘을 주는 문화예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의력이 자유롭게 폭발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예술지원사업 결과 발표가 한창입니다. 올해의 창작지원작들을 담은 예술가도시 서울을 상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우리 도시의 문화예술 기초체력을 다지는 예술창작산실 그 자체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창작지원 그 이상의 서울형 예술지원체계를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봄에 미리 가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술가가 마음껏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계절마다 이어지는 도심 곳곳의 문화예술 축제는 모든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며 문턱을 더욱 낮추어 다양한 이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따금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꼭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클러스터, 그리고 장르별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보다 가까운 곳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문화도시로 우뚝 선 문화강국의 메카, 서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이 예술가와 동행하며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혼신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지를 통해 매월 만나 뵈게 될 독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여정에 함께해주시요. 때로는 즐거운 참여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비평으로, 서울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싹이 꽃을 피워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듯,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맺을 결실을 기대하며 새해 인사를 마칩니다. [문화+서울]과 함께, 보다 문화예술 현장과 가까운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중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SCENE

추억도 랜잡아, 올겨울 문화 탐방

10 공연
보증된 명작부터 신선한 실험까지
연극&뮤지컬

12 공연
고전과 현재가 만나는 무대 풍경
클래식음악

14 공연
한바탕 춤추고 노래하며
무용&전통예술

16 전시
서울에서 즐기는 야심 찬 예술 여행
주목할 대규모 전시

22 이벤트
일상이 놀이, 매일이 축제
축제&행사

24 이벤트
이불 밖도 따뜻해
추천 문화 공간



COVER STORY

전시 연계 프로그램 <찰랑찰랑 알록달록>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1층
예술도담으로 들어서면 알록달록한 색감을
자랑하는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상설 전시 연계
프로그램 <찰랑찰랑 알록달록>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전통예술의 가치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자세한 사항은 42쪽에서 계속.

FOCUS

28 예술가의 진심
최영규, 끝없는 발레의 즐거움 속에서

34 예술인 아카이브
강고운

36 예술인 아카이브
황진아

38 페이퍼로그
서울연극창작센터팀 윤다슬
지속 가능한 예술을 위해

40 인사이드
개관 전 시범공연으로 만나는
서울연극창작센터

42 인사이드
전통예술의 가치에 오늘을 더하면
찰랑찰랑 알록달록

44 인사이드
잊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14만 원으로 증액된 문화누리카드

46 인사이드
당신의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47 인사이드
생애 첫 단계부터 성인까지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

48 트렌드
교통수단 반입을 거부 당하는 악기들

COLUMN

52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일깨우고, 꿈꾸게 하는 시간의 정원

54 산책엔 플레어리스트
음악이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

56 동시대적 고전 읽기
혹시 당신, '염소 선생님'은 맞은 건가요?

58 스크린 너머의 세상
어느 순간 공포로 다가온 '자연의 섭리'

60 삶의 책장을 넘기며
나의 진짜 새해 소망은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2월 4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추위도 괜찮아, 올겨울 문화 탐방

기대와 설렘을 일으키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부터
눈길을 허투루 돌릴 수
없는 화려한 전시, 도시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해줄
축제·행사와 당신의 하루를
포근하게 감싸줄 멋진
공간까지. 잊을 수 없는 겨울을
만들어줄 각종 문화예술
이야기를 모았다.



보증된 명작부터 신선한 실험까지 연극&뮤지컬

연말 연초의 흥분과 설렘이 지나간 2월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애매한 시기다. 새 학기와 봄을 기다리며 차분한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 계절에 함께하기 좋은 뮤지컬·연극을 소개한다.

한국 관객이 사랑하는 와일드혼의 명작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은 한국 뮤지컬 관객이 특히 사랑하는 뮤지컬 작곡가다. 그의 작품은 뮤지컬 본고장인 미국 브로드웨이·영국 웨스트엔드보다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환영받는다. 주역의 고음 테크닉을 강조하고 감정 전달에 충실한 멜로디라인이 한국 관객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번 겨울에도 그의 작품 네 편이 잇달아 서울 시내 대형 뮤지컬 극장에서 선보인다.

5월 18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한국 초연 20주년 기념공연을 펼치는 <지킬 앤 하이드>는 누적 관객 수 180만 명을 돌파한 스테디셀러다. '지금 이 순간'은 작품을 보지 않은 관객도 알 만큼 유명한 넘버. 이번 공연에는 홍광호·전동석·신성록 등 기존 지킬에 최재림·김성철이 새로 합류했다. 2월 23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하는 <시라노>

5년 만에 돌아와 관객을 만나고 있다. 용맹한 군인이자 탁월한 시인이지만 불품없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사랑하는 여인 앞에 작아지는 남자의 이야기를 경쾌하게 그려냈다. 시라노의 거침 없는 기상을 노래하는 '거인을 데려와'가 대표 넘버로 꼽힌다. <웃는 남자>는 3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 빅토르 위고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17세기 영국, 귀족들의 놀이감이었다가 버려진 광대 그윈플렌의 이야기다. 박은태·이석훈·규현 등 기존 캐스팅에 NCT 도영이 새로 합류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인기 무희이자 독일과 영국의 이중 첩자로 몰려 사형 당한 마타 하리의 삶을 그린 <마타하리>는 3월 2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볼 수 있다. 와일드혼이 "옥주현의 공연"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그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옥주현과 솔라가 마타 하리 역을 함께 맡았다.

진중한 연극의 세계로

<세일즈맨의 죽음>은 풀리처상·토니상 등을 받은 '현대의 고전'이다. 1949년 초연한 후 7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연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압박과 가족 간 갈등이라는 주제가 현대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3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하는 <세일즈맨의 죽음>에는 박근형·손병호·예수정·이상윤·박은석 등이 출연한다. 1940년생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무대에 서는 박근형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들의 꿈, 가족 간 갈등처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국립극단의 '기획초청 Pick코닉'은 민간 극단의 우수 연극 레퍼토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프로젝트다. 국립극단 전용의 명동예술극장에서 민간 극단의 작품을 상연한다. 2월 8~10일, 15·16일 공연하는 <파랑새>와 2월 13~15일 공연하는 <전략>은 창작집단 양손프로젝트의 작품이다. 박지혜·손상규·양조아·양종욱으로 구성된 양손프로젝트는 연출가 홀로 제작을 주도하는 기존 연극 관행에서 벗어나 작가·배우·연출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다자이 오사무·김동인·기드 모파상 등 유명 작가의 소설을 무대화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왔는데,

'틸틸'과 '미틸'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로 유명한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 알베르 카뮈의 <전략>도 그 연장선에 있다.

온가족이 함께 보면 더 좋은

지난해 초연해 호평받은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은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천선란 작가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낙마해 고장난 휴머노이드 기수와 안락사를 앞둔 말의 따뜻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린다. 그룹 펜타곤 출신의 진호, 오마이걸 출신의 효정이 초연에 이어 출연한다. 미래 세계를 그린 SF지만, 로봇을 아날로그적인 퍼펫(puppet)으로 구현한 점도 이채롭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치! 티니핑>은 국내 유아 콘텐츠 시장의 신홍 강자로 자리잡았다. 유행에 힘입어 극장판 <사랑의 하츠펙>도 큰 인기를 끌었다. 외계 행성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가 지구 곳곳에 흩어진 마음의 요정 티니핑을 찾아다닌다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관련 굶즈를 사달라고 조르는 통에 보호자에게 '파산핑'이라고도 불린다. 2월 16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사랑의 하츠펙>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의상 전환, 아날로그 감성의 그림자극, 대형 구조물로 연출된 티니핑 퍼펫 등을 선보인다. 연출을 맡은 일루서니스트 이은결은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마술적 장면 연출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 ©서울예술단
뮤지컬 <시라노>의 주인공을 맡은 최재림 ©RG컴퍼니, CJENM
박근형의 연기가 돋보이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쇼앤텔레플레이, T2미디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김성철 ©오디컴퍼니
뮤지컬 <마타하리> 타이틀롤 옥주현 ©EMK뮤지컬컴퍼니

고전과 현재가 만나는 무대 풍경

클래식 음악

새해를 기념하는 신년음악회 시즌이 마무리됐으니, 본격적으로 목직한 레퍼토리를 다루는 공연이 곳곳에서 열린다. 올 한 해 준비한 음악을 서서히 펼쳐는 여러 단체와 음악가의 소식을 만나보자.



다시, 말리를 듣는 시간

말리의 교향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2월은 그야말로 더없이 반가운 시간이 될 것 같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월에 선보인 말리 교향곡 2번 '부활'에 이어,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롯데콘서트홀에서 말리 교향곡 7번 '밤의 노래'를 연주한다. 야프 판 즈베덴Jaap van Zweden은 지난해 취임 이후 임기 5년간 서울시향과 함께 말리 교향곡 전곡을 연주·녹음할 계획을 밝혔다. 차근차근 그 레퍼토리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즈베덴이 까다로운 말리 7번을 어떻게 해석할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KBS교향악단은 2월 21일 정기 연주회에서 지휘자 정명훈과 소프라노 황수미·메조소프라노 이단비와 함께 말리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한다. 이어 3월 3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으로 열릴 KBS교향악단과 일본 도쿄 필의 합동 연주회에서는 말리 교향곡 1번 '거인'을 들려준다. 말리 교향곡은 정명훈이 서울시향 재직 당시 집중적으로 연주하고 또 여러 음반까지 발매한 레퍼토리다.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말리를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지금 그가 KBS교향악단과 함께 선보일 말리, 그리고 서울시향이 야프 판 즈베덴과 함께 선보일 말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비교해보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대편성의 말리 교향곡 연주를 연달아 듣는 일은 꽤 만나기 드문 행운이다.

오늘의 고전을 담는 무대

올해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는 창단 6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2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그 두 번째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연주한다.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가 '영웅'과 함께 준비한 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과 김택수의 '온고잉Ongoing'(세계 초연)이다. 바흐 연주를 위해 최근 주목받는 젊은 하프시코드 연주자 마치에이 스크제치코프스키Maciej Skrzeczkowski를 초대할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김택수의 신작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저 오래된 고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을 중심에 두고, 그의 단단한 기반이 됐을 바흐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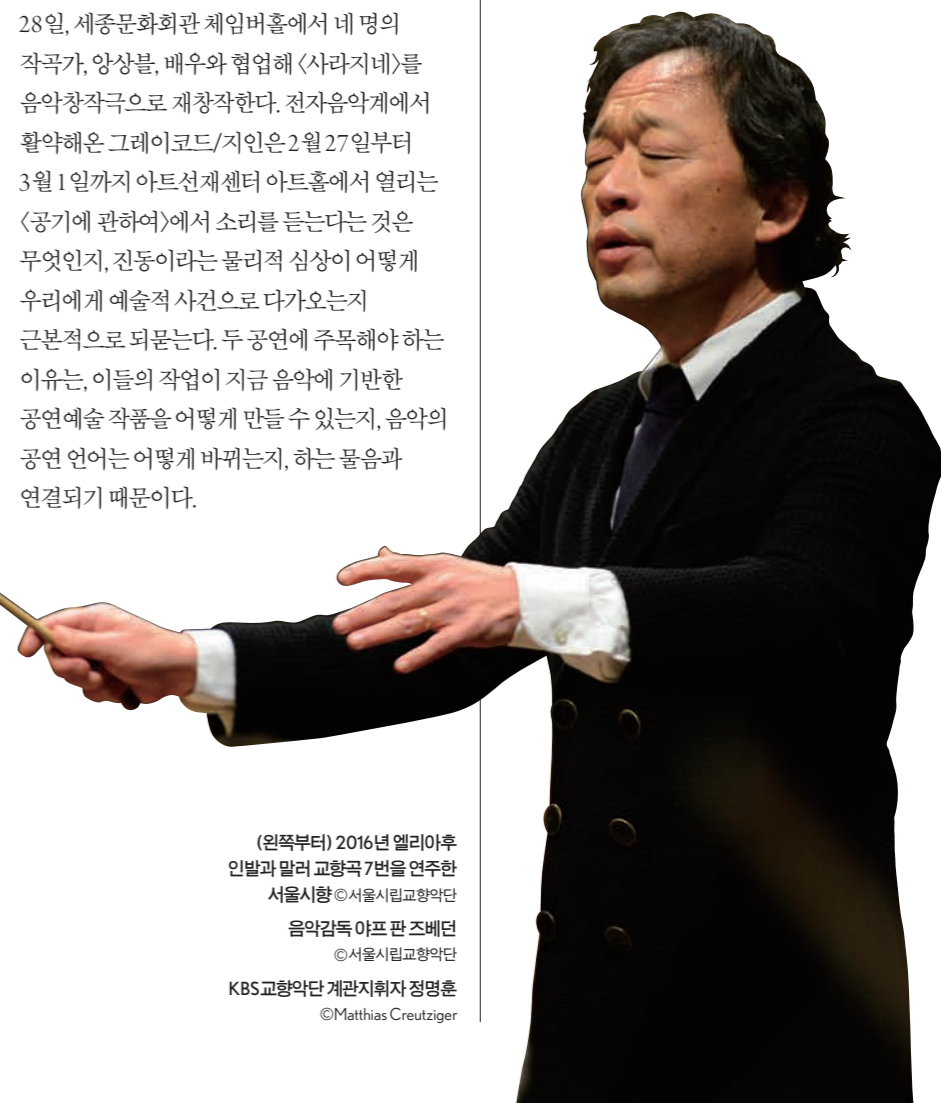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역사를 담고 자라난 김택수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흥미로운 공연이 될 것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ARKO 한국창작음악제, 일명 '아창제'도 2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젊은 음악가들이 만드는 음악은 다양한 무대에서 펼쳐져왔지만, 여러 여건상 동시대 한국 작곡가들이 만든 '오케스트라곡'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는 꽤 드물었다. 그런 맥락에서 아창제가 준비한 무대는 지금 우리의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다. 박대은과 임영진·김신의 초연작과 이장규·전예은의 재연작까지, 다섯 작곡가가 선보일 우리 음악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이 기간 무엇보다 기대되는 신작은 아르코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부문의 두 공연이다. 아트그룹포네는 2월 27일과 28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네 명의 작곡가, 앙상블, 배우와 협업해 <사라지네>를 음악창작곡으로 재창작한다. 전자음악계에서 활약해온 그레이코드/지인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아트선재센터 아트홀에서 열리는 <공기에 관하여>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진동이라는 물리적 심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술적 사건으로 다가오는지 근본적으로 되묻는다. 두 공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작업이 지금 음악에 기반한 공연예술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음악의 공연 언어는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물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음악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

연주자 개개인이 준비한 크고 작은 공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2월 8일에는 독특한 프로그래밍으로 리사이틀을 꾸준히 개최해온 피아니스트 지유경이 바흐와 베토벤 사이 다채로운 구성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탐구한다. 연초부터 꾸준히 공연을 올리는 금호아트홀에도 반가운 소식이 가득하다. 특히 2월에는 올해 금호아트홀링스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6일)와 김서현(13일)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오늘날 클래식 음악계에서 맹활약하는 음악가들은 대부분 '금호' 무대를 거쳐왔다. 언제 티케팅이 어려워질지 모르는 뛰어난 음악가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왼쪽부터) 2016년 엘리야후 인발과 말리 교향곡 7번을 연주한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야프 판 즈베덴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정명훈 ©Matthias Creutziger

한바탕 춤추고 노래하며 무용 & 전통예술

상대적으로 공연계 비수기인
연초라지만 무용과 전통예술
판은 북적북적 활기를 띤다.
재기 발랄한 신작과 믿고 보는
레퍼토리를 두루 살펴봤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이하 창작산실)이 열리는 1월부터 3월은 공연계에서 장르마다 주목할 만한 신작을 볼 수 있는 축제 시즌으로 통한다. 올해는 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오페라·전통예술 등 6개 장르 31편을 선보인다. 특히 2월은 다른 장르에 비해 공연 기간이 짧은 무용과 전통예술 작품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달이다. 무용 7편 가운데 5편, 전통예술 5편 가운데 4편 공연이 이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무용 장르에서 안무가 류장현이 이끄는 현대무용단 류장현과 친구들 <GRAVITY>(2월 7일부터 9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가 포문을 연다. 중력·무게·끌림을 뜻하는 제목답게 무용수 간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임의 확장을 보여준다. 이어 최근 한국 창작춤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는 99아트컴퍼니 <피안의 여행자들>(2월 13일부터 16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이 관객을 찾아온다. 안무가 장혜림은 제의적 움직임과 목소리를 통해 인간의 몸과 만물의 근원인 대지의 연결을 추구한다.

창작그룹 패념치 thoughts go <로망Roman 노망老妄>(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노년의 그림자 속에서 잊힌 로망의 빛을 되찾으려는 몸짓을 담았다. 이번 창작산실 무용 작품 가운데 유일한 발레 장르인

와이즈발레단 <갓세렝게티God: Serengeti>(2월 28일과 3월 1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는 인간 진화의 산물인 문명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의 대립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가 신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위대함과 무모함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주제의 컨템퍼러리 발레다. 마지막 작품인 언노운피에스 UNKNOWNPS의 <TIME IS SPACE SPACE IS TIME>(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신체와 오브제 그리고 빛을 이용해 시간, 공간, 기억,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감각적으로 펼친다.

창작산실 전통 장르에선 김준수·유태평양 등 스타 소리꾼을 내세운 아정컴퍼니 남도 선소리-시를 읊다 <님이 침묵한 까닭?-중머리에 대하여>(2월 7일부터 9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가 먼저 관객을 만난다. 다소 긴 제목의 이 작품은 한용운 '님의 침묵', 윤동주 '별 헤는

밤', 김소월 '진달래꽃' 등 근현대 시인 7명의 시를 육자배기 등 남도 장단과 소리로 부른다.

이어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구라철사금 歐羅鐵絲琴·打>(2월 8일과 9일 구름아래소극장)을 선보인다. '구라파(유럽)에서 들어온 쇠줄로 된 악기'라는 뜻의 구라철사금은 채로 줄을 두드리며 연주하는, 국악기 유일의 타현악기 양금의 다른 이름이다. 이번 공연에선 현악기의 면모를 강조한 기존 공연과 달리 타악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국악그룹 우리소리 바라지의 창극 <돈의 산:神>(2월 14일과 15일 서울남산국악당)은 평생 가난에 허덕이다 죽은 남자가 다시래기(상가 마당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연극을 꾸며 노는 놀이) 도중 되살아나 동네 사람들과 돈의 신을 불러내려다 실패하는 소동을 그렸다. 그리고 연희 연출가 임영호는 <연희물리학 ver.1 '원'>(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리아트홀



코스모스대극장)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물리학을 접목한 의례를 선보인다. 현대적인 사운드와 움직임은 담은 연희의 신명으로 일상의 번잡함을 해소한다.

창작산실 외에도 전통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공연 두 편이 2월에 펼쳐진다. 전통 연희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광대>(2월 16일까지 국립정동극장)와 민속음악의 보존과 계승을 맡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왔소! 배뱅>(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립국악원 우면당)이다.

<광대>는 1902년 국내 첫 서양식 극장으로 설립된 협률사의 첫 공연 <소춘대유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유료 공연인 <소춘대유희>는 정재·민속춤·판소리·탈춤·망재주 등 연희를 다채롭게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대>는 예술단이 <소춘대유희> 복원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장에 100년 넘게 살아온 오방신과 선배 광대 귀신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소동을 악가무희 총체극으로 그려냈다. 2021년 이미 한 차례 <소춘대유희-백년광대>라는 제목으로 선보인 초연 공연에선 멀티 프로젝트 매핑·메시 홀로그램 등 미디어아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이번엔 기술의 활용보다 연희를 강화해 공연성을 부각했다.

<왔소! 배뱅>은 1인극으로 선보였던 고씨 이은관(1917~2014(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명인의 배뱅이굿을 민속악단 단원들이 배역을 나눠 참여한 소리극이다. 배뱅이굿은 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적인 굿놀이이다. 문벌 높은 집안의 무남독녀 배뱅이가 상사병으로 죽자 그 부모가 딸의 혼령을 위로하는 굿을 여는데, 영터리 박수무당이 거짓 닻풀이로 재물을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초연 당시 웃음과 해학, 풍자가 특징인 민속악의 매력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아 5개월 만에 재연 무대를 준비하게 됐다.

(왼쪽부터) 양금 연주자 윤은화
국립정동극장 전통연희극 <광대> ©국립정동극장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왔소! 배뱅> ©국립국악원

서울에서 즐기는 야심 찬 예술 여행

주목할 대규모 전시

여기가 피렌체인가, 파리인가,
아니면 빈이란 말인가!
전시 정보만 잘 챙기면 애써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도 다채로운 명화를
만날 수 있으니.

→ 《빛의 거장 카라바조&바로크의 얼굴들》 전시 전경



바로크를 연 천재 화가 카라바조

예술 강국 이탈리아에서도 '3대 천재 화가'로 꼽히는 거장들이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리고 카라바조! 1571~1610다. 4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생애지만 카라바조는 '바로크'라는 17세기 새로운 시대의 미술을 열었다.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인데, '다 빈치'가 빈치 Vinci 출신임을 뜻하듯 밀라노 인근 그의 고향 마을의 이름으로 불렸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3월 27일까지 열리는 《빛의 거장 카라바조&바로크의 얼굴들》 전시에서 카라바조의 작품 10점과 그의 영향을 받은 동시대 화가 작품까지 총 57점의 바로크 미술을 만날 수 있다.

현존하는 카라바조의 작품 자체가 100여 점에 불과한 만큼, 그의 원화를 10점이나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중 3점은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왔다. 성 토마스가 스승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을 그린 〈성 토마스의 의심〉이 그중 하나다. 촛불 하나만 켜둔 듯 어두운 공간에서 살아 돌아온 예수의 가슴팍과 어깨만이 환하게 빛나며 연극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빛과 어둠의 대비로 격정적 감정과 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카라바조 화풍의 특징이다.

카라바조는 종교적 내용의 그림을 많이 남겼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권위가 흔들린 가톨릭교회는 대중의 새로운 관심이 필요했고, 문맹률이 높던 당시로는 그림의 역할이 중요했다.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강렬하게 그려내는 카라바조를 교황청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르네상스의 화풍이 지배적이었는데, 카라바조는 생생한 표현과 역동적인 구도로 혁신을 이뤄냈고 훗날 바로크 예술의 거장인 루벤스·렘브란트·벨라스케스 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실력 천재가 인성 천재는 아니었다.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었고, 다툼이 잦았다. 급기야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교황청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 현상수배범 신세로 여러 지역을 떠돌다 객사했다.

꼭 봐야 할 작품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이다. 매력적인 곱슬머리 소년이 달콤한 과일 사이에서 나타난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렸다. 귀 뒤에 꽂은 흰 장미는 사랑에 빠진 매혹을, 그의 앞에 놓인 붉은 체리는 욕망과 관능을 암시한다. 사랑의 쾌락에는 고통이 뒤따른다. 소년의 찌푸린 표정과 흐트러진 자세가 경고의 메시지다. 거의 똑같은 그림이 3점 존재한다. 이번 전시 출품작은 런던 내셔널갤러리, 로베르토 롱기 미술사연구재단의 버전과 달리 소년의 오른쪽 눈에 고인 선명한 눈물이 특징이다.

1조 원 규모의 반 고흐 작품들

짧은 생애와 위대한 업적으로 카라바조와 견줄 만한 화가가 있다면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아니겠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불멸의 화가 반 고흐>(3월 16일까지) 전시가 한창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고흐 작품을 소장한 크렐러 필러 미술관의 컬렉션 76점으로 구성된 전시다. 그 유명한 <밤의 카페 테라스>가 이곳 소장품이다. 고흐의 작품값으로 말하자면, 지난 2022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앨런 소장품으로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 1억 1,700만 달러, 우리 돈 약 1,700억 원에 낙찰됐다. 전시 출품작 76점의 보험가액만 1조 원 이상이다.

전시는 고흐의 생애를 따라 펼쳐진다. 목사가 되려다 실패한 그는 화랑에서 일하며 안목을 익히고 감각에 눈떴다. 장 프랑수아 밀레의 그림에 감명받은 고흐는 노동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정직한 농민들의 삶을 담고 싶어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초기작 <감자 먹는 사람들>에는 그런 고흐의 인간애가 담겼다. 고흐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는 1886년 형을 설득해 파리로 갔다.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고, 일본 목판화를 수집하며 고흐의 작품은 가볍고 화사한 색조로 변화했다. 모델을 구할 형편이 아니었기에 거울 속 자신을 즐겨 그리기도 했다. 고흐가 남긴 30여 점 자화상 중 25점이 '파리 시기'에 탄생했다. 전시에 나온 <자화상> 속 청년 고흐는 푸른색 정장을 멋지게

<빛의 거장 카라바조&바로크의 얼굴들> 전시 전경



← 빈센트 반 고흐, <착한 사마리아인(들라크루아 원작)>, 1890, 캔버스에 유화, 72×91.3cm
↓ 빈센트 반 고흐, <씨 뿌리는 사람>, 1888, 캔버스에 유화, 64.2×80.3cm

차려입고 에메랄드색 눈을 반짝이며 희망을 속삭인다.

괴팍했던 고흐는 동료 화가들과 갈등을 빚었고, 충동적으로 떠난 남프랑스에서 햇살이 아름다운 도시 아를 Arles 을 만난다. 가장 창조적이던 '아를 시기'에 본받고자 했던 밀레의 작품을 모티프로 한 <씨 뿌리는 사람>을 완성했다. 예술가 공동체를 꿈꾸며 폴 고갱을 아를로 초대했지만 이내 싸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광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 고흐는 위대한 자연을 발견하고, 구원과 영혼의 평화를 갈망하며 최고의 걸작을 남겼다.

'세기말 천재' 클림트와 실레

예술의전당에 카라바조와 반 고흐가 있다면, 강 건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와 에곤 실레1890~1918가 있다. 특별전시실 1관에서 한창인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3월 3일까지)에서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적이면서도 퇴폐적 분위기가 물씬한 작품은 자유와 변화를 꿈꾼 화가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황금빛 찬란한 《키스》 등으로 유명한 클림트는 빈 응용미술학교 출신이다. 장식미술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귀금속 세공사인 아버지의 영향에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택한 길이었다. 화려한 대형 건물이 잇따라 신축되던 1886년, 클림트는 국립 공연장인 부르크극장의 벽화를 의뢰받았다.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관람 중인 권력자와 부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그려내며 단숨에 당대 최고의 화가로 추앙받았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으나 동생의 죽음으로 슬럼프에 빠졌고, 이후 클림트는 ‘상징주의’로 돌아섰다. 암시와 상징으로 가득한 모호하고도 몽환적인 그림 말이다. 클림트는 미술계의 보수적인 태도에 갑갑함을 느껴 1897년 빈 분리파를 창설했다. 과거의 예술과 ‘분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다. 말년의 클림트는 고상한 화려함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고 외설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숭고하게 여겨진다.

에곤 실레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기에 오히려 보수적인 미술학교와 맞지 않았고, 당대 최고의 스타 화가였던 클림트를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거장의 재주를 가졌으나 사춘기 소년 같은 도발적인 면을 가진 실레였다. 그의 작품은 성적 욕망을 다루지만 에로틱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에 가깝다. 아버지가 매독으로 미치광이가 돼 세상을 떠난 것이 예민한 화가에게 그림자를 드리운 셈이었다. 어린 소녀들을 모델로 데려다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유괴 혐의는 벗었지만 미성년자 앞에 음란한 그림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시련과 논란은 오히려 실레의 정체성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고, 명성을 얻게 했다. 하지만 찬란한 시절은 불꽃놀이처럼 짧았다. 28세의 실레는 당시 유럽 전역을 덮친 스페인독감으로 사망했다. 반년 먼저 세상을 떠난 클림트와 같은 사인 ㄸ이였다.



↑ 구스타프 클림트, 《수풀 속 여인》, 1898년경, 캔버스에 유화, 32.4×24.0cm, 빈 클림트 재단 소장, Photo Klimt-Foundation, Vienna,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고려 12세기, 높이 15.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에곤 실레,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1912, 패널에 유화 및 불투명 채색, 32.2×39.8cm, 빈 레오폴트 미술관 소장, Photo Leopold Museum, Vienna,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오스카 코코슈카, 《헤르만 슈비르츠발트 II》, 1916, 캔버스에 유화, 79.1×63.0cm, 브로에르 자선재단 소장, Photo Leopold Museum, Vienna,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이번 전시는 최고의 ‘에곤 실레 컬렉션’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의 소장품 191점으로 이뤄졌다. 오스카 코코슈카·리하르트 게르스틀 등 대중에게 생소한 숨은 거장의 발굴이 전시의 또 다른 미덕이다. 600년간 유럽을 호령한 합스부르크 가문이 몰락하던 격변의 시기에 예술가는 어떻게 현실을 감지하고 새 희망을 꿈꿨는지를 탐색하며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왕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갔으니 바로 옆 특별전시실 2관의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3월 3일까지) 전시도 쟁여보면 좋겠다. 한국미의 절정인 고려청자 274점을 전시하기 위해 국보 11점, 보물 9점을 포함해 국내 25개 기관 소장품과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기관 소장품까지 끌어모았다. 뛰어난 고려의 기술력은 향·차·술 등 취향과 용도에 맞춰 사자모양 향로, 연꽃모양 찻잔, 참외모양 병, 사람 모양 주전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조를 이끌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다.

일상이 놀이, 매일이 축제 축제&행사

겨울방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위를 잊고 공원과 거리를 물들이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 풍경을 여기 모았으니,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목!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식 만찬 K-푸드페스티벌 너닉

서울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한강달빛야시장이 한식 특화 푸드마켓으로 개편해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월 재정비를 마치고 2월부터 새롭게 단장한 '너닉'은 너넨한 인심의 해치 캐릭터를 내세워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현장 품평회를 거쳐 엄격하게 선발된 푸드트럭에서는 김치베이컨치즈전부터 크림치즈꽃감말이·누룽지 닭강정·꿀인삼 셰이크·오미자에이드 등 누구나 좋아할 만한 한식 메뉴를 내세운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인사동까지 서울 도심을 산책하다 출출한 저녁쯤 들르기 좋다. 판매 음식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회용기로 제공되며, 주변에 식음 공간, 포토존, 공연 무대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도 마련됐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



©서울월드디자인페스티벌

가장 먼저 만나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한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전시회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2월 마지막 주말에 걸쳐 닷새간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에 맞춘 가구와 가전은 물론 생활소품·조명·침구·패션·식품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매년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주제관'은 일상 공간에 디자인이 스며드는 순간의 기쁨을 다채로운 오브제를 통해 구현해낸다. 단순히 좋은 상품을 모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량 있는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협업으로 매년 흥미로운 디자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올해도 디자이너스 초이스, 리빙트렌드세미나, 리빙 디자인 스폿 등 영감 넘치는 순간을 예고하고 있다.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 코엑스

©한국관광공사

달리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더 레이스 서울 21K

'600년 고도' 서울의 명소를 품에 안고 달리는 더 레이스 서울 21K가 서울광장에서 출발한다. 시청과 을지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지나는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21킬로미터)와 10킬로미터 코스로 구성돼 숙련된 마라토너는 물론, 초보 러너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 특히 이번 코스는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포함해 평탄한 직선 구간으로 설계했으며, 기록 경신을 원하는 참가자를 위한 '더 레이스 리더스 그룹'도 운영한다.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도심 레이스인 만큼 총 1만 명의 러너가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23일 | theraceseoul21k.com



©Nike Clear9

스탬프 찍으며 즐기는 박물관 투어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미술과 역사·인문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박물관 투어를 떠나보자. 2009년 시작해 올해로 32회를 맞이한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는 송파구와 관내 7개 박물관이 함께 운영하는 전시 체험 인증 프로그램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가 열리는 더 갤러리 호수에서부터 국내 첫 공립 책 박물관인 송파책박물관, 조각전이 진행되는 소마미술관, 공익광고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광고박물관 등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함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나들이는 7개 박물관을 모두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감상활동지'에 스탬프를 찍으면 마무리된다. 첫 방문지에서 감상활동지를 챙겨 마지막 방문지에서 수료증까지 알차게 받아보면 어떨까. 공식 수료증은 학교 방학 과제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2월 28일까지 송파구 관내 박물관(더 갤러리 호수·롯데월드 민속박물관·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소마미술관·송파책박물관·한국광고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취향대로 즐기는 겨울 생태 탐방 정원이의 겨울방학

겨울방학을 맞아 월드컵공원과 보라매공원·경의선숲길공원에서 다채로운 생태 교실이 열린다. 각 공원은 '정원'을 모티프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족 단위,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에서 선착순 접수를 시작했다. 월드컵공원에서는 동화를 읽고 직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는 '정원이의 애니메이션' 외 4개 체험 프로그램, 보라매공원에서는 실내 식물의 생육 환경에 적합한 생장등과 습도 센서를 만들어보는 '정원이는 코딩 식집사!'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내 가드닝 프로그램인 '서정원 씨의 겨울나기', 경의선숲길공원에서 마련한 교과서 속 식물과 생물을 알아보는 탐구 수업 '숲길 따라 정원 산책'도 눈길을 끈다. 2월 20일까지 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경의선숲길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이불 밖도 따뜻해 추천 문화공간

계절이 춥다고 이불만 뽁뽁 싸매고 있을쏘냐. 추위를 피해 멋진 공간으로 이색 문화 탐방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유난히 추운 올겨울,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명제를 깨고 가볼 만한 서울의 문화생활 공간을 소개한다. '숨어 듣는 명곡'처럼, 혼자만 알고 있거나 가까운 서울 곳곳의 숨은 문화생활 공간으로 추위를 피해 문화 탐방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것이 지루해진 학생과 부모님, 데이트 장소를 찾아 나선 연인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공간을 방문한다면 겨울날의 꽤 그럴싸한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테다.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신나는 만화 탐방

짜장면이 아닌 피자를 먹으며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오픈했다. 서울 송파구 위례에 있는 그래픽 바이 대신은 이태원 경리단길에 있던 만화방 '그래픽'의 2호점이다. 이태원 그래픽은 어른들을 위한 만화방으로 주류 주문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입장이 제한된다. 반면 그래픽 바이 대신은 어린이가 방문할 수 없다는 1호점의 아쉬움을 보완, 모두가 입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핫플레이스는 아니지만, 주거 지역인 위례에 문을 연 만큼 그래픽 바이 대신 지상 2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래픽 바이 대신을 찾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극장을 방불케 하듯 층층이 쌓인 인락한 소파, 너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따라 달라지는 낮과 밤의 분위기, 바깥바람을 쐬며 '불명' 할 수 있는 외부 베란다까지. 멋진 인테리어를 갖춘 공간에 방문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탄할 요소들이 그래픽 바이 대신을 가득 채우고 있다. 웹툰·쇼트폼 콘텐츠에 길들여 책을 읽기 두려워진 사람이라도 책을 '읽기'보다 만화를 '보고', 공간을 '보는' 휴식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만화책을 구비하고 있는 그래픽 바이 대신



따뜻한 곳으로 여행 떠나기 어렵지 않아요

추위에 약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따뜻한 곳으로의 여행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식물원이 온실에서 즐기는 약 10주간의 겨울 이색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서울식물원 윈터 페스티벌은 온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전시로 구성된다. 지중해관에서는 '겨울 요정이 나타났다!'라는 주제의 크리스마스 특별 전시가 한 차례 열렸고, 열대관에서는 '오늘 난'이라는 주제 아래 2월까지 열대 난초 전시가 진행된다.

'오늘 난' 전시에서는 만다·카틀레야·온시디움·텐드로비움·팔레놉시스·파피오펜딜룸 등 다양한 색상의 난초 60여 종을 감상할 수 있으며, 동남아 지역의 전통 공예품을 활용한 포토존이 마련돼 공간을 찾는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열대 난초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만다를 만나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난초로 이번 전시를 위해 태국에서 만다 28품종, 희귀 난초 16품종 등 모두 600여 개체를 도입해 선보이고 있다. 춥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이들, 두꺼운 외투를 잠시 벗어두고 조금 일찍 봄을 만나길 원하는 이들에게 서울식물원 방문을 추천한다.

← 그래픽 바이 대신 공간 중앙의 홀 테이블은 인락한 소파를 구비해 특히 인기가 높다
→ 화려한 색감의 난초를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열리는 서울식물원





차분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이라면

2019년 6월 문을 연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조선 시대 신유박해¹⁸⁰¹를 시작으로 10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박해 받은 한국 천주교회 최대의 순교성지인 서소문 밖 네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아픈 역사를 지닌 공간이지만 오픈 초창기부터 MZ세대의 숨겨진 인증샷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박물관은 잊힌 죽음의 형장^{刑場}에서 새로운 문화와 이야기가 사람들과 함께 생동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웅장한 건축에 압도되고 싶다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꼭 들러보자.

박물관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공간은 콘솔레이션 홀, 하늘광장, 하늘길이다. 위로를 뜻하는 영단어 콘솔레이션^{consolation}에서 이름을 따온 이 공간은 고구려 무용총의 내부 구조에 모티프를 두었고, 고분벽화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사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콘솔레이션 홀 상단 벽면을 둘러싼 겹재 정선 <금강내산전도> 영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하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늘광장은 어두운 콘솔레이션 홀과 마주 보며 대조를 이룬다. 붉은 벽돌의 거대한 벽면 앞에 서서 '인생사진'을 남기는 경험도 놓쳐선 안 된다. 하늘광장 왼편에 숨어 있는 공간인 하늘길의 경사면을 따라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그 길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아외의 푸른 하늘도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길 것이다.

낮은 짙고 밤이 길어서인지, 손발을 뽕뽕 열게 만드는 추위 때문인지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올겨울. 지면에 소개한 공간을 둘러보며 즐거움, 따뜻함, 차분함이 가득한 계절의 순간을 만끽해보시기를 바란다.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보이드 공간

ASSOCIATED

- 예술가의 진심
최영규, 끝없는 발레의 즐거움 속에서
- 예술인 아카이브
강고운
황진아
- 페이퍼로그
서울연극창작센터팀 윤다슬
- 인사이드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 전 시범공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복 <찰랑찰랑 알록달록>
14만 원으로 증액된 문화누리카드
-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
트렌드
교통수단 반입을 거부 당하는 악기들

최영규,

끝없는
발레의

즐거움
속에서





해외 곳곳에 진출해 다양한 무용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무용수의 수가 200명을 훌쩍 넘었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거나 한때 국위 선양으로까지 여겨지던 해외 진출이 이제는 당연히 여겨질 정도이니 짧은 시간 한국 무용수들의 성장은 경이로울 정도. 그러니 이 시점에 그의 활동상을 짚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겠다. 2011년부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노 최영규의 이야기다.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발레의 별빛> 갈라를 위해 내한한 그를 만났다. 올해 입단 15년 차인 최영규가 수석무용수로 승급한 지 꼬박 10년이 됐다고 했다.

“발레는 끝이 없는 예술이에요. 파고 또 파도, 무언가가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되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레라는 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시간 발레라는 예술을 해왔지만, 여전히 새롭게 발견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도 어김없이 또 움직이게 된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발레를 시작해 서른다섯이 된 지금까지, 처음 만난 춤이 어색해 문화센터 탈의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티던 소년이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을 대표하는 무용수로 우뚝 서기까지. 그 시간을 짚어봤다.

처음 연습실에 발을 디디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여덟 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죠. 순천에서 나고 자라서 발레가 익숙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각종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처음 발레 클래스를 경험했죠. 누나가 먼저 발레를 시작했고, 어머니께서 너도 한번 해 보라고 하신 거였어요. 명절이면 어른들 앞에서 자주 재롱떨곤 했는데, 그 모습에서 소질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첫 수업 날, 그냥 너무 하기 싫어서 의자에 앉아 자는 척했던 기억이 나요. 혼들어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선생님께서 저를 탈의실에 데려다 두셨죠.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클래스는 거부감 없이 했어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겨울에

본격 서울로 향했어요. 4학년 일 년 동안은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콩쿠르도 많이 나갔죠. 5학년이 되고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비학교에 입학했어요. 본격 전공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유망주로 주목받던 학창 시절을 지나 해외 발레단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열다섯 살에 스위스 취리히의 발레학교 Tanz Akademie Zürich로 2년간 유학을 다녀왔어요.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그때가 처음이죠. 그 경험으로 해외에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당시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유럽식 메소드는 너무나 생소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점점 발레 안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고, 춤추는 방식도 조금 더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해외 발레단에서 클래식 발레뿐만 아니라 새로운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배워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 입단한 직후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학교 다닐 적부터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슬개건염을 달고 살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무대에 오르다보니 만성이 된 거죠.

↑ 압둘라흐만 역을 연기한 <레이몬다> © Altin Kalfira/Het Nationale Ballet
 K <지젤> 중 알브레히트 © Younsik Kim/Het Nationale Ballet

2년 정도 앓았고 반년은 소염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는데, 제가 너무 오래 아파하니 발레단에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호두까기 인형>에서 꽤 비중 있는 파드퇴를 맡은 차였는데 발레단에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당장 휴식해야 한다고 진단하더라고요. 석 달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잘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석달을 쉬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다시 춤추기 시작하니 괜찮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내 몸을 쓰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프지 않게,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사용하는 법을 연구하게 됐죠.

네덜란드와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노로서 발레단에 입단한 지 15년, 그리고 올해 수석무용수로 10년 차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2016년 승급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느낌도 있었고요. 단장님만 아니라, 발레마스터, 그리고 관련한 분들이 좋게 봐주셨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불어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죠. 제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발레는 어렵지 않았어요. 늘 해오던 것이니까요. 오히려 멘털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됐죠. 하고 싶은 것을 못 할 때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제 상황으로 인해 누군가 대신 무대에 올라야 할 때 어떤 말을 건넬 것인지 등등... 기분이 날뛰어 내 컨디션과 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부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레퍼토리가 워낙 풍부하기도 합니다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얼마 전에도 공연한 <레이몬다(Raymonda)>2022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레이철 보장(Rachel Beaujean)이 발레단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와 안무로 재구성한 버전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넘도록 준비한 작품이라 유독 애정이 가기도 하고요. 제가 맡은 압둘라흐만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열정이 엄청난 캐릭터이고, 안무 면에서도 ‘맛있게’ 춤출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게 어울리는 캐릭터로 꼽고 싶어요. 또 다른 작품으로는 <지젤(Giselle)>이요. 알브레히트가 앞으로 걸어 나가며 막이 닫히는 마지막 장면에선 저 역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몰입하게 되죠. 상주안무가인 한스 판 마넨(Hans van Manen)의 작품은 대부분 좋아해요. 작품 안에 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같은 안무가

주어지더라도 저만의 느낌을 낼 수 있죠. 저는 춤 안에 감정이서 뚜렷한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공연’에 수여하는 스완(Swan)상의 영광을 제게 가져다준 투르 판 스키이크(Toer van Schayk)의 작품 <교향곡 7번(7th Symphony)>도 애정이 깊습니다.

어떤 춤을 추는 무용수가 되고 싶나요. 관객마다 제 춤을 보고 느끼는 감상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어떤 한 번의 울림을 줄 수 있는 무용수가 되는 게 제 목표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발레라는 고전의 춤을 동시대에 소구하고자 현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오늘날 이토록 고전적인 예술인 ‘발레’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나요. 클래식 발레란 참 오래된 예술이에요.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모던 발레나 컨템퍼러리 발레 같은 흐름이 생겨났고, 이후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고전은 고전만의 색깔이 있고,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상이 있어요. 클래식 발레만이 가진 색깔과 매력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고전을 사랑하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고전을 토대로 의상이나 소품 등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좀 더 시대 흐름에 맞춰 세련되게 바꾸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영상물을 HD 화질로 즐기다가 이제 4K로 감상하는 것처럼, 고전 역시 다듬는 polishing 작업이 필요하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레란 끝없는 예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소화하는 데 있어 안무가의 의도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혹은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가요. 안무가가 당초 의도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맞게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춤을 출 때 일정 범위 안에서 스스로 낼 수 있는 느낌이 있다면 발현하는 게 맞고요. 어떤 안무가는 안무만 제시하고 표현은 무용수의 영역으로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무가 자신의 색깔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해요. 우선 의도를 충실히 파악하고,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온전히 내게 주어진 역할이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국내에도 발레 관객층이

많이 탄탄해졌는데, 한국의 발레 지형이 보다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내에서도 작품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발레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겠죠. 다방면으로 교류가 이뤄져 클래식 발레와 모던·컨템퍼러리 발레, 해외 발레단이나 안무가의 작품 등 새로운 것들을 관객이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전체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자주 공연했지만, 윌리엄 포사이스(William Forsythe)나 이스라엘 안무가 호페시 셰흐터(Hofesh Shechter)의 작품만 봐도 정말 새롭고 충격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크리스털 파이트(Crystal Pite)의 <스테이트먼트(The Statement)>2016, 웨인 맥그레거(Wayne McGregor)의 <유겐(Yugen)>2018 같은 작품도 너무 좋고요. 트리플 빌 형식으로 공연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서는 한스 판 마넨·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후안호 아르케스(Juanjo Arqués)의 작품을 한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하는데, 그런 구성으로 공연을 보면 또 각 작품의 감상이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무용수의 생명력은 길지 않죠. 이후의 계획도 생각하고 있나요. 서른이 넘으니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누군가의, 또 단체에서의 본보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만큼 제가 남겨줄 것도 많아지리라는 생각이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춤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요즘 들어 관객분들께 더욱 다양한 발레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교류를 이루고 싶어요.

최영규의 인생에 있어 춤은 어떤 의미인가요. 20대 때만 해도 발레가 물론 가장 좋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해 보려고 했어요. 취미도 다양하게 만들어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무언가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발레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여기에 내 시간을 온전히 쏟는 게 당연하고, 즐겁고, 그래서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이제는 춤으로 하여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눠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강고운

공예/도자

@whitethings_

2024·2025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 <이어지는 점_cylinder>, 2024, 백자, 커피박, 물레성형, 소성 후 옷칠, 연마, 140×150mm



“백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활용해 작업하고 있는 도자 작가 강고운입니다. 저는 흙이라는 재료에 매력을 느껴 도자기를 시작했고, 실험을 통해 어울리는 재료를 흙에 섞어 작업을 하는 데 큰 흥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적 소재의 유기물인 커피박·옷 등 소재에 주목해 최근에는 이를 융합한 새로운 시각·촉각적 질감을 가진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술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도 종이를 사용해 그리는 것보다 석고나 고무판화 같은 재료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더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대학에 공예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공예과가 있는 학부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입학한 대학에서 처음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떤 형태도 잡혀 있지 않은 흙이라는 소재가 여러 과정을 거쳐 도자기로 변하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도자를 전공으로 정한 후에는 모든 공예가 그렇듯 주재료(흙)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과 제작 과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4년의 과정이 끝난 시점에서 졸업전시에도 출품했는데 정말 생각지 못하게도 작품이 판매됐습니다. 그때 작품을 구매하신 분의 표정과 응원의 말이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감사함이나 고마움보다는 새로운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작업이 다른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충족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부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을 이어가고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술’과 ‘예술가’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스스로 느낀 경험은 없지만 검색 결과 중 ‘예술을 직업 또는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예술가의 기준이고, 예술의 정의가 ‘원하는 작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에 맞는 소재와 방법을



찾아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라면 저도 예술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데 하루 중 가장 많은 일과를 보내고, 이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술적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설명일지 모르나 그만큼 제게 예술가라는 타이틀은 그저 매사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백자와 안료, 유기물, 옷칠을 활용한 ‘이어지는 점’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점’ 시리즈에는 표면에 기존의 백자에서 볼 수 없는 작은 기공이 보이는데, 이는 커피박을 섞은 소지(흙)이기 때문입니다. 커피박은 커피를 내리고 남은 원두의 찌꺼기로, 흙에 섞어 성형하면 초벌 과정에서 타고 없어져 마치 현무암과 같은 기공이 나타납니다. 유기물을 섞어 기공을 낸 기물은 백자 특유의 매끄러운 표면 감촉은 유지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알은 음각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유기물 중에서 커피박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물레 성형에 방해가 적다는 점, 원활한 재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공을 낸 백자는 새로운 질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강조하고자 선택한 방법이 옷칠이었습니다. 옷칠은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단단하게 마르는 자연의 도료입니다. 소성 시 물성이 변하는 유약이나 슬립(흙물)과 다르게 알고 작은 기공의 사이사이를

매워 색을 채우는 데에 용이해 옷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부는 기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약 처리를 했는데, 기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프레이 분사 기법으로 마감했습니다. 도자와 옷칠 모두 색상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색상의 작업도 점차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주로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제 사진첩에는 특히 양구의 작업실에 있을 때 찍어놓은 자연 풍경이나 클로즈업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늘에 무성하게 자리한 이끼라든가, 삭아가는 나뭇잎의 결대로 나타나는 패턴,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발 같은 장면들인데요. 이 느낌과 촉감을 기물에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생각합니다. 도자기는 흙과 불에서 탄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과는 뿔수 없는 관계이기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의 손길이 머물렀던 옛 물건들에서도 영감을 받습니다. 오래된 청동기의 녹슨 표면이나 낡은 골동품 가게에서 산 벼루, 너무 많이 만져 닳고 닳은 나무 지팡이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애정을 주었던 사물이 가지는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이와 닳은 사물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작업하다 막히거나 계기를 찾고 싶을 때

↑ ‘이어지는 점’ 시리즈, 2024, 백자, 커피박, 물레성형, 소성 후 옷칠, 연마, 스테인리스 손잡이

국립중앙박물관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는 저만의 작은 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갈 때마다 다른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 때마다 달라서인 것 같습니다. 유기물을 처음 넣을 때는 선사 시대의 유물에 찍힌 벼의 자국이나 유기물이 타고 남긴 검은 연기가 착색된 가지문토기가 눈에 들어왔고, 옷칠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종일 옷칠 된 함이나 장식품을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면 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작품의 색상 변주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흙과 유약, 옷칠의 다양한 색상 조합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부의 마감도 유약이 아닌 색상이 있는 옷칠로 해서 옷칠의 면적을 넓히는 작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물레를 사용한 입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지금의 작업 방식을 활용한 평면 작업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평면 작업은 물레라는 제작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다른 방식의 접근임과 동시에 도자기가 기공으로서 가지는 용도보다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재료의 물성을 좀 더 부각할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진아

한국음악/거문고

@hwang_gina

ginahwang.creatorlink.net

2017~2023

최초예술지원·예술창작지원 선정

2024 서울예술인NFT

“ 저는 거문고 연주자로 출발해 음악 창작자·음악감독·작가 등 다양한 역할을 겸하고 있는 N잡러 예술가 황진아입니다. ”

“ 처음 창작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0년 ‘정가악회’라는 전통음악 기반 창작음악 단체에 입단하면서부터예요. 그곳에서 창작음악과 더불어 줄풍류·가곡과 같은 풍류음악을 깊이 다루며 많은 무대에 섰고,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기회도 종종 가졌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상상 속의 거문고 소리가 제 안에 쌓인 것 같아요. 단체에서는 채 풀어내지 못한 저만의 음악이요. 그것들을 밖으로 꺼내보고 싶었고, 2017년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독주자이자 창작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예술가라고 느끼고 있어요. 예술가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만 좀 더 주체적으로 ‘창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대학생 때였어요. 오랫동안 공부해온 전통음악도 소중하지만, 지금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좀 다른 그릇이 필요했거든요. 그 그릇을 직접 만들면서 음악 창작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그릇이 더욱 다양해져서 음악에서 출발해 공연 기획, 음반 제작, 사진·아트필름 작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

“ 저는 주로 거문고의 소리와 연주법을 확장해 새로운 형태의 ‘솔로거문고’를 만들어나가고 있어요. ”

↑ 황진아 콘서트 <Scene#>
→ 거문고 연주자 황진아 ©김재현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음반 『The Middle』2019과 『Short Film』2022이 있습니다. 특히 『Short Film』에서는 아트필름 프로젝트인 ‘Scenario’를 파생시켜 <새벽>2023과 <검은 숲>2024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제 솔로 작품은 국내외 다양한 극장, 페스티벌은 물론 뉴욕 링컨센터, 뉴질랜드 ‘쿠파두파CubaDupa’ 같은 해외 무대에도 초청돼 음악가 황진아를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

“ 음악가로서 저는 ‘전통음악 혹은 창작음악’ 같은 이분법적 분류가 아닌, 이 땅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악기와 음악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제 작품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인상이 공존하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제가 작업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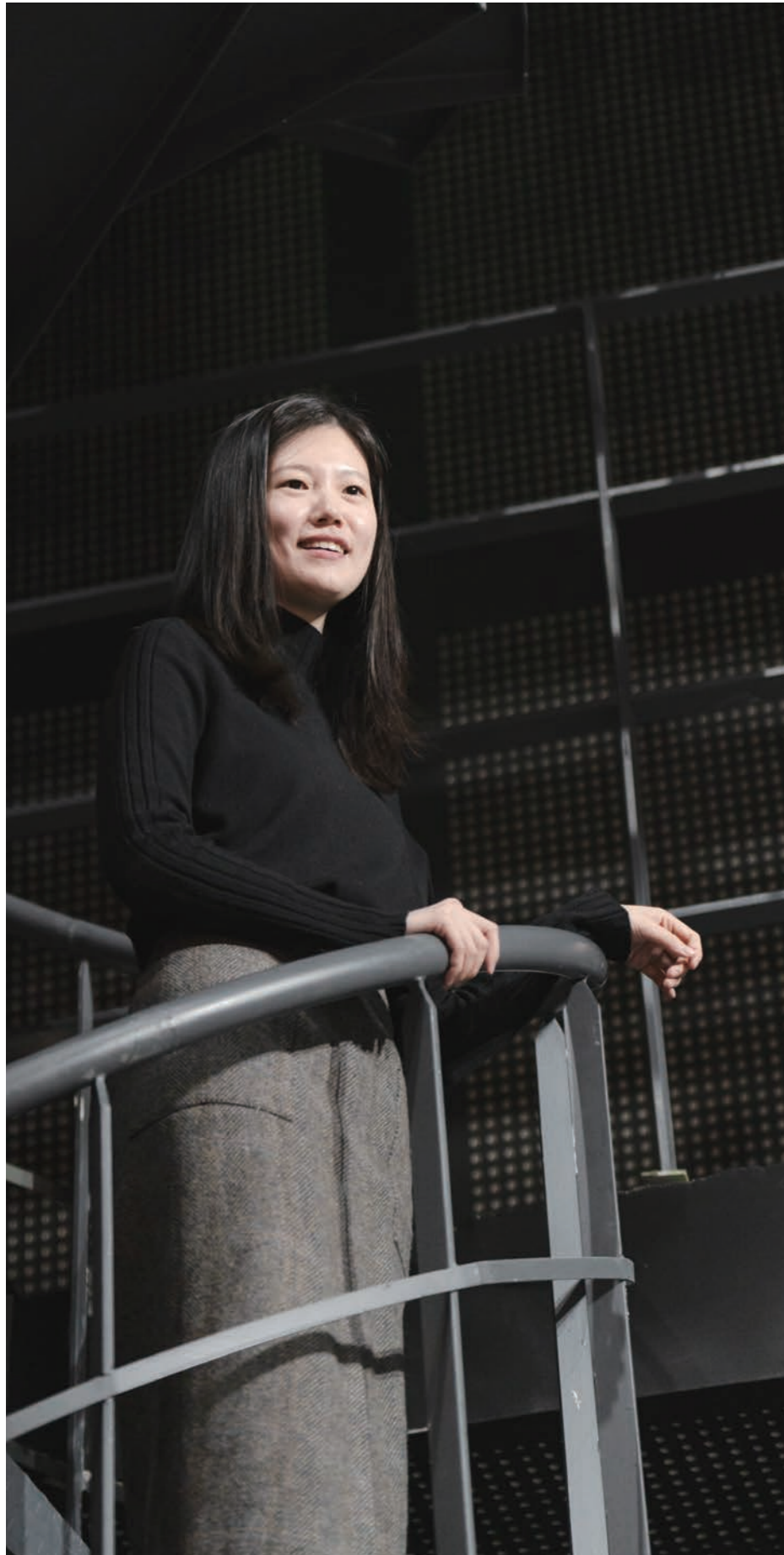
“ 음악 작업을 할 때 주로 생각나는 텍스트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에요. 때때로 그 텍스트들은 스토리 혹은 풍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의 형태를 갖추는데, 이것들이 음악을 창작하는 데 일종의 방향키 역할을 하죠. 그렇게 만든 음악들은 필연적으로 서사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든 음악들을 묶어 낸 음반이 『Short Film』입니다. 또 스토리 외에도 이미지나 생각, 그에서 발현되는 감정들, 관계의 운동성 등 일상 혹은 상상 속 다양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평소 이러한 자극들을 잘 저장해두려고 하죠. 저는 이걸 ‘인벤토리inventory’라고 불러요. 마치 게임처럼요. ”

“ 최근 <존 오브 인터레스트The Zone of Interest>2024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우슈비츠 앞 사택에 사는 독일군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악의 평범함’ 등을 잘 표현해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미술과 미장센이 더 기억에 남아요. 균형과 불균형, 컬러와 흑백 등의 탁월한 배치를 통해 처참한 시대와 그들을 짓밟으면서 만들어진 안락한 가족의 대비가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려졌달까요? 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아나스타시Annastasia의 최근작 『Surface Tension』2024도 아주 인상 깊게 들어요. 제가 추구하는 낯설과 익숙함, 그리고 오리지널리티가 이상적으로 배치된 완성도 높은 음반이었어요. ”

“ 2025년에는 ‘오감’을 주제로 새로운 솔로 작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거문고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의 직관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인데요. 이에 앞서 다양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어 마음이 아주 바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 작업을 잘 발전시켜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내 관객과 자주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서울연극 창작센터팀 윤다슬 지속 가능한 예술을 위해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인터뷰 대상이 되는 일은 평생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온,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무척 어색한 윤다슬입니다. 2023년 말부터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 새롭게 들어서기 시작해 오는 3월 개관을 앞둔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 근처에서 눈에 띄는 적벽돌 건물을 발견하셨다면, 그 건물이 바로 서울연극창작센터입니다. 새 공간인 만큼 모든 직원이 사업을 기획하는 동시에 공간 조성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개관식을 준비하는 동시에 예술과 공간 인테리어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서울문화재단에 함께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해서, 막연히 전공 학문으로 먹고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주변인 모두가 인정하는 '집순이'라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곳에서 주로 필요한 제 전공을 써먹기가 쉽지 않더군요. 전공을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스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러던 중 어떤 작품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 작품은 ○○○○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예술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작품이 만들어지고 문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마침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업무 관련 행정스태프 채용 공고가 있어 지원했습니다. 운 좋게 합격해 근무를 시작한 것이 2015년 일이니, 벌써 10년 전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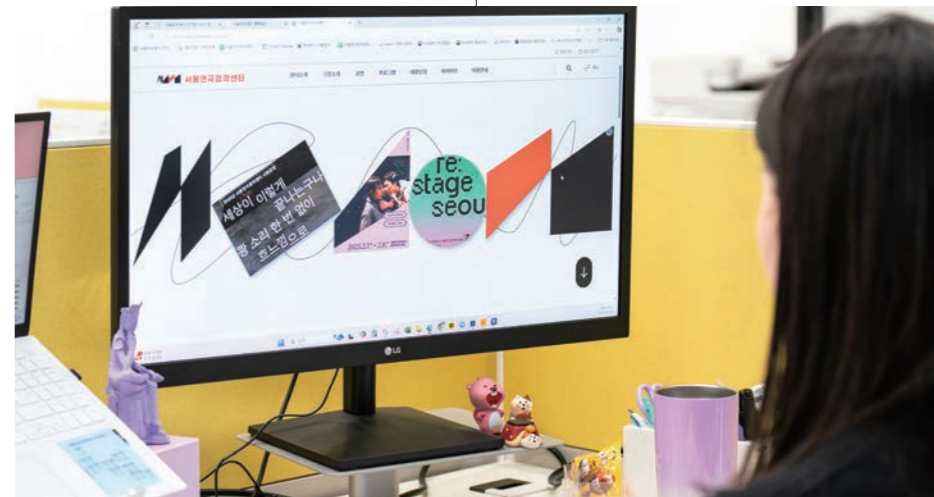
꽤 오랫동안 예술지원 사업을 담당했다고요. 이후 2020년 정식으로 입사해 예술지원팀에서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음악 분야를 약 2년간,

시각예술 분야를 약 1년간 담당했어요. 행정스태프 등을 통해 경험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즐겁게 배우며 일했지요. 여러 담당자와 함께 예술가와 행정가가 모두 좀 더 편할 방법을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특히나 즐거웠습니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지원 사업의 큰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원 없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쉽지 않은 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현장에 다양성을 더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지원의 역할이니까요.

오는 봄 개관할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이곳은 연극 작품의 초기 단계부터 발표까지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초 건립한 연극 전용 지원 시설로, 2024년 6월 완공돼 현재는 막바지 내부 시설 보완 작업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건물 중앙에 커다란 계단 통로가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센터 내에는 블랙박스 극장인 서울씨어터 제로, 프로서니엄 극장인 서울씨어터 202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 연습실 2실, 연극 단체의 사무 공간인 연극인 오피스,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연극인 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소품과 창고가 이곳에 있어 시민과 연극인이 편리하게 공연물품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3월 개관식과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개관 페스티벌을 통해 모든 분들께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공간과 운영 방향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개관 첫해인 만큼 극장 운영이나 연극인 역량 강화, 작품 제작 지원 등 여러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곳 서울연극창작센터가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나요. 아무래도 서울문화재단 안에서도 새로 생긴 팀이라 내부에서도 헛갈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북구에 자리잡고 있어 '성북 센터' 같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예술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종종 현장에서 예술가들과 간담회를 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도화선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지원사업을 통해 가까이 다가오던 도화선이 조금은 멀어진 느낌이다라고요. 저는 서울연극창작센터가 그 도화선을 잘라줄 수 있는, 연극인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삶에 예술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거리를 걸으며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수많은 공공미술이 있고, 곳곳에서 크고 작게 열리는 문화 행사도 많아요. 하지만 궁금해하지 않으면 근처에 아무리 좋은 문화예술이 있어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작품에는 예술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작품에 담긴 예술가의 표현에 호기심을

갖는다면, 문화예술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앞에도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돼 있으니 눈여겨봐주세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탁 트인 풍경, 귀여운 무언가를 보면 기분이 전환되는 것 같아요. 종종 가족이 키우는 고양이의 일일 집사를 자청하곤 하는데,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이 지면에 제 사진이 아니라 저희 고양이 사진이 들어간다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좋아지실 텐데... 싶은 마음마저 드네요. (웃음)

2025년 새해 목표를 들려주신다면. 업무적으로는 센터가 무사히 개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소홀해진 운동을 다시 꾸준히 해 보려고 합니다. '연극 많이 보기'라는 새로운 목표도 있고요!

개관 전 시범공연으로 만나는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오는 3월 본격 개관에 앞서, 연극 전용 극장 '서울씨어터 제로'와 '서울씨어터 202'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월과 2월 시범공연으로 처음 관객과 만난다. 극장별로 각 한 편의 연극이 공연되며, 1월 24일과 25일 서울씨어터 202에서 극단 배다의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를 가장 먼저 선보였다. 이어 2월 7일과 8일에는 서울씨어터 제로에서 공놀이클럽의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을 전석 무료로 선보인다.

두 편의 공연은 티켓 예매를 시작한 당일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서울연극창작센터에 대한 시민과 연극인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의 극장 경험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운영 시스템에 적용해 완성도 있는 연극 전용 극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1월 무대에 오른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는 각색 박주영, 극단 배다 장한새 연출의 창작 공연이다. 2017년 창단한 극단 배다는 <왕서개 이야기>, <붉은 낙엽>으로 제57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2020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제4회 대한민국 연극대상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은 단체다.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며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위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질게 배어나오는 연극을 만들고자 한다.

"내일이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1월에 공연된 작품은 종말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국 작가 네빌 슈트(Nevil Shute)의 장편 소설 『해변에서』를 각색한 작품이다. 핵전쟁으로 방사능 낙진이

↓ 장한새 연출, 극단 배다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 서동민 작·강훈구 연출로 공놀이클럽이 선보이는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있잖아, 아무래도 우리 오빠가 내 립스틱 쓴 거 같아." 연극은 재개발을 앞둔 2010년 서울 은평구의 연립주택에 사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품고 있는 서로 다른 욕망을 들춰낸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오빠의 커밍아웃을 막아야 하는 스무 살 재수생 은빈의 딜레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쿼어 정체성을 가진 인물의 삶을 전통적 가족 서사 안에 녹여낸 이 희곡은, 좋은 삶이 무엇인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한다.

이번 연극에서 배우들은 하나의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놀이-연극의 '플레이어'가 돼 고정된 배역 없이 돌아가며 다역을 '수행'한다. 시시각각 규칙이 바뀌는 공놀이처럼, 시시각각 역할이 바뀌는 연극놀이처럼, 플레이어들은 딸이 되었다가, 오빠가 되었다가, 다시 엄마가 되었다가, 할머니가 된다. 플레이어들은 젠더 스테레오 타입을 연기하다가, 또 다른 젠더를, 다른 연령을 연기한다. 마치 장난처럼, 젠더와 연령을 유쾌하게 교차하며 횡단하는 배우들의 놀이-플레이는, 서로 다른 입장을 짐작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연극적 체험이 될 것이다.

발생하면서 호주 멜버른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재난 속에서도 자신만의 삶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가가며, 재난 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울연극창작센터 시범공연으로 서울씨어터 202에서 재연된 이 작품은 객석 일부를 무대로 활용해 마치 관객이 호주 멜버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라는 마지막 대사를 남기고 암전, 그리고 막이 내린 뒤 관객으로 하여금 극장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듯 복잡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정원에 꽃과 식물을 심는 피터와 메리 부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이라와 드와이트, 의문의 신호를 따라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떠나는 스웨인과 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림자 속에서 담담함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객석에 남은 관객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남긴다. '만약,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공놀이로 들여다본 나와 너의 욕망
2월 공연될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은 서동민 작가와 공놀이클럽 강훈구 연출가가 완성한 작품으로, 2024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선정됐다. 연극 제작 집단 공놀이클럽은 청소년과 청년, '영 어덜트(Young Adult)'가 주제인 연극을 제작해왔다. 쿼어 이슈를 섬세하고 탄탄한 드라마로 담아내는 신진 작가 서동민과 함께 공놀이를 시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묻는 신나는 공놀이가 되길 바란다.

연극의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의상을 맞춰 입는 방식으로 하나의 캐릭터에서 다른 캐릭터로 옮겨가는 것이다. 재개발과 가족 내 권력에 집착하는 할머니, 아들이 삶의 희망인 홀어머니, 몰래 립스틱을 바르는 서울대생 오빠와 그 가족 안에서 부대끼고 성장해가는 재수생 여동생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하는 4명의 배우를 통해 관객은 자신과 타인의 굴레와 욕망을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 제작 초기 단계부터 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연극 창작 전용 공간. 오는 3월 서울연극창작센터 개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극 공연과 연극인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과 연극인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서울연극창작센터 누리집(st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예술의 가치에 오늘을 더하면 찰랑찰랑 알록달록

지난해 11월 새롭게 문을 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인간다움, 관계, 함께 어우러짐'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개관 페스티벌 '형형색색'을 개최했다. 이와 연계해 11월 15일부터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전통예술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연계 프로그램 <찰랑찰랑 알록달록>이 진행되고 있다.

<찰랑찰랑 알록달록>은 개관 페스티벌 '형형색색'의 일환인 전시 연계형 워크숍이다. 총 9회로 구성된 워크숍을 통해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전통예술을 배우고, 자연의 재료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본다. 참여자들은 직접 한지를 떼보고 꽃과 열매 등 자연에서 온 재료로 염색하며 자연의 순환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천과 실 등을 사용해 개인과 공동의 태피스트리를 제작했다.

올해는 지난 <찰랑찰랑 알록달록> 워크숍 결과를 확장하는 전시를 열고 있다.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작품과 한지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그 과정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전통예술을 체험하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체험 코너도 운영하므로 전통예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엮어낸 전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전통예술의 가치에 오늘의 의미를 더해가는 <찰랑찰랑 알록달록>은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의 가치를 경험하며,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 재료를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1층 예술도담으로 들어서면 5개로 나뉜 전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에 들어서면 보이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공동



작업 대형 태피스트리는 전통 자연 염색 방법으로 염색한 직물을 엮어가며 만들어낸 하나의 공동 작품이다.

참여자들은 모두가 예술가가 돼 그동안 숨겨왔거나 몰랐던 자신의 예술성·창의성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나도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실이 얽혀 만들어낸 모양과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재료와 과정'에서는 염색에 사용되는 염재와 한지뜨기에 사용되는 닥 등을 탐색해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한지가 만들어지고 염색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과 각각의 재료는 어떤 모양과 냄새를 가졌는지 탐색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며 눈앞의 재료들이 만들어갈 색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한지로 만들어진 상상의 세계 '상상의 꽃밭'은

한국 전통 농화의 자연 이미지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창작한 조형 작품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의 손으로 표현된 각각의 농화를 통해 한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예술의 조형미를 느껴볼 수 있다.

'나만의 문양 화병'에서는 한국 전통 화병 모양의 발틀과 오방색으로 염색된 닥 원료로 만들어진 한지 화병을 감상할 수 있다. 한지에 염색된 색과 문양을 감상하며 직접 나만의 문양을 담은 화병을 그려보는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 문양을 만끽해보기를 바란다.

이번 상설 전시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공간을 방문한 참여자들이 전통예술을 일상 가까이에서 접하고 예술을 통해 타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하기를 바랐다.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함께하는 '우리'의 가치에 집중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상설 전시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으며, 2월 28일까지(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일·월요일 휴관) 운영된다.



잊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14만 원으로 증액된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국내 여행과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총 612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43만여 명에게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올해는 주민센터 현장 발급과 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 발급 기간이 동일하다. 소진하지 않은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으니 잊지 않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Q. 자동 재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A. 지난해 발급자 중 사용 이력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이미 보유한 카드에 자동 재충전이 가능하며,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자동 재충전이 진행됐다. 또한 1월 말부터 자동

재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차례로 문자 알림을 발송했다.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 중 지역별 그해 예산 소진 전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mnuri.kr)·모바일 앱·전화 ARS(1544.3412)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과 재충전이 가능하다. 더불어 자동 재충전 완료 여부는 2월 3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재충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하면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Q. 문화누리카드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A. 문화예술(도서·음악·영화·케이블 TV·공연·전시·공예·사진관·문화 체험), 관광(교통수단·여행사·관광 명소·캠핑장·온천·테마파크·숙박), 체육(스포츠 관망·체육용품·체육시설) 분야 문화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리집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축제 부스에서는 비허용 품목인 식음료 결제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일 년간 서울 지역 31곳 축제에서 407개 가맹점이 운영된 바 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가맹점이 직접 방문해 문화누리카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화장터'에서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문화누리 소셜미디어 채널을 참고하면, 관련한 올해 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Q. 서울 지역 내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서울문화재단은 온라인 카드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쉬운말 소개를 담은 책자 '권역별 쉬운말 이용안내지', 전화 한 통으로 집 앞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전화결제 가맹점' 안내지를 제작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 어디에나 비치돼 있으니 쉽게 수령 가능하다. 또한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 시내 국공립

공연장·미술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무료 전시, 공연 할인 및 초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주요 할인 가맹점으로는 리움미술관(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무료 관람), 국립극단(문화누리카드 소지자 50% 할인), 국립극장(기공공연 50% 할인), 클립서비스(clipservice.co.kr) 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이벤트, 신규 가맹점, 축제 정보 등 알찬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서울문화누리'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으로 문의하면 궁금한 점을 편하게 답변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이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Q.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의 온라인 사용이 보다 편리해졌다.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페이 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카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다. 일일이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정보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누리카드의 이점을 올해도 많은 시민이 누리보시기를 바란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mnuri.kr
블로그 blog.naver.com/ssculture
인스타그램 @seoul_mnuri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문화누리
뉴스레터 seoul-mnuri.stibee.com
문화누리카드 일반 문의 1544.3412
가맹점 및 나눔티켓 문의 1544.3405
서울 지역 주관처 문의 02.758.2079/2080/2084

당신의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서울문화재단은 더 많은 예술인(단체)의 참여를 위해 예술지원사업 공모를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한다. 2024년 9월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공고를 내 '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지원', '원로예술지원'에 총 5,500여 명의 예술인(단체)이 지원했으며, 지난 1월 결과가 발표됐다. 이어 1월 20일 공고를 시작한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는 '예술기반지원', '특성화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을 포함한다. 신청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접수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예술기반지원**은 예술 생태계와 창작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준비와 구상 단계의 활동을 지원하는 'RE:SEARCH'와 공간 임차료를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창작예술공간지원',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의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는 '시각예술작품집 발간지원',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단체)의 작품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까지 총 4개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2월 7일까지)

② **특성화지원**은 특정 분야 및 대상을 지원해 예술지원의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 생태계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메세나지원'(3월 14일까지)은 재단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거리예술·서커스지원'(2월 19일까지)은 올해 경력이 없거나 적은 예술인에게도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력 단계별 트랙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진 예술인을 유입하고 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외 축제의 장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2월 14일까지)은 최대 2천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해

역량 있는 장애예술인(단체)을 발굴하고, '융합예술지원'(2월 14일까지)은 기술 기반의 예술창작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며, 선정자에게는 제4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5'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③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은 크게 '시민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예술교육' 두 차례로 나눠 운영한다. 그중 1차 '시민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하는 공모가 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47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챗봇에 물어보세요

예술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누리집 내에 '예술지원 안내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지원 관련 문의가 있다면 서울문화재단 업무 시간에 직원과의 유선을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주말은 물론, 새벽(0시~8시)부터 점심시간(12시~13시), 야간(18시~24시)까지 24시간 365일 예술인이 원하는 어느 때나 챗봇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공모 일정, 신청 방법, 사업 소개 등 주요한 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예술지원 안내챗봇'을 통해 문의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시각예술(양천)/연극·뮤지컬·전통예술(강북)/음악(서초)/무용(은평)를 고려한 프로젝트 개발·운영을 지원해 공공 공간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장르를 기반으로 조성된 예술교육 거점 센터를 활용해 공간 특성을 살리고 해당 장르를 충분히 뒷받침할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달라진 점 ④ 자율기획형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확대하고, 기존 5월 중순부터 시작되던 사업 일정을 4월 중순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프로그램 준비부터 홍보와 참여자 모집까지 일정이 빠듯하다는 선정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보완했다.

공모는 1차 '시민문화예술교육'(2월 12일까지), 2차 '지역문화예술교육'(2월 7일 별도 공고 예정)으로 진행된다. '시민문화예술교육'은 유아 및 양육 매개자 대상 생애 첫 단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지원하는 '유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로 함께 생동하는 서울시민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일반(자율기획형, 공간연계형)'까지 총 3개의 세부 사업이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은 서울시 자치구 대상 사업인 '지역협력형'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선정자(단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역량강화 등 과정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단 회차로 진행되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를 개편한 '서울예술교육 아카데미'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중간 단계에서 자기 점검이 가능하다. 회차 과정 심화 워크숍을 운영해 각 선정자(단체)의 프로그램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예술가(단체)가 고유의 작업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과정, 시민이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경험, 지역이 교육예술가(단체)의 활동과 만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술교육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 주체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구현되도록 장·단기적 시각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생애 첫 단계부터 성인까지 서울 문화예술 교육지원

2025년에는 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했고,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차 통합공모를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

달라진 점 ① 기존 '생애주기(일반)'와 '자율기획형' 사업이 '시민일반-자율기획형'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참여 대상을 특정한 신규 사업 개발을 독려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실행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다양성 확대뿐 아니라 운영단체와 예술가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달라진 점 ② 올해는 서울시가 조성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연계한 장르 특화형 지원사업 '시민일반-공간연계형'을 새롭게 추진한다. 센터별 특화 장르(문학(용산)/

2023년 '서울시 제2차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전까지 운영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지난해에는 '생애주기형', '자율기획형', '지역협력형' 3개 유형으로 운영했다.



교통수단 반입을 거부 당하는 악기들

악기 연주자들은 종종 연주보다 연주 장소까지 가는 길이 스트레스라는 농담을 하곤 한다. 특히 비행기에 오를 때는 더욱 긴장한다. 악기가 기압과 온도, 흔들림으로 인해 약해지는 데다 악기 때문에 탑승을 거부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음악가에게도 예외는 없다. 지난 12월에 일어난 미국 첼리스트 셰쿠 카네 메이슨 Sheku Kanneh-Mason의 사례를 보자.

토론토 공연을 앞둔 카네 메이슨은 첼로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어캐나다 Air Canada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에어캐나다의 '특수 수하물 반입의 경우 48시간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게 이유. 그런데 카네 메이슨의 경우는 예정된 항공편이 당일 취소돼 급하게 에어캐나다의 항공편 티켓을 구한 터라

사전에 알릴 수 없는 조건이었다. 논란은 카네 메이슨이 첼로 운송을 위한 추가 좌석을 예매했고, 공연 주최 측인 왕립음악원의 호소에도 탑승을 거부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커졌다. 카네 메이슨은 1700년대에 제작된 그의 첼로 마테오 고프릴러 Matteo Goffriller (최대 300만 달러, 한화 약 42억 원)를 위탁 수하물로 실는 대신 공연을 연기하기로 했다.

2017년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Gidon Kremer가 이끄는 앙상블 크레메라타 발티카 Kremerata Baltica도 에어캐나다의 제재로 첼로 4대를 기내에 반입하지 못했다. 첼로는 결국 항공기 4대의 기내에 분산돼 실렸으며, 마지막 첼로는 간신히 공연 직전에 도착했다. 저가 항공의 경우 규정은 더욱 까다롭다. 지난해 9월 항공사 라이언에어 Ryanair는 바이올린 케이스가 규정보다 1센티미터 크다는 이유로 기내 반입을 거부했다.

특수 수하물인 악기의 기내 반입 규정은?

일반적으로 바이올린·비올라처럼 좌석 위 선반에 들어가는 악기는 기내 반입이 무료로 가능하다. 첼로처럼 세 변의 합이 115센티미터 이상인 중형 악기의 경우 자신의 옆에 추가 좌석을 구매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제한이 있다. 에어캐나다의 경우 악기의 높이나 길이가 162.5센티미터,

← 미르나 헤르조그는 알리탈리아 비행편 이용 후 악기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 Myrna Herzog



주요 항공사별 악기 기내 반입 관련 수하물 규정		
 <p>영국항공 케이스 길이 80cm 이하 무료, 140×50×46cm 이하의 경우 별도 좌석 구매</p>	 <p>에어캐나다 높이 55×너비 40×깊이 23cm까지 무료, 높이/길이 162.5cm 및 무게 36kg 이하의 경우 별도 좌석 구매</p>	 <p>알리탈리아 항공 세 변의 합 115cm 및 최대 중량 8kg 이하 무료, 첼로의 경우 폭 52×깊이 40×높이 135cm 및 무게 55kg까지 허용</p>
 <p>루프트한자 높이 55×너비 40×깊이 23cm 및 무게 8kg까지 허용, 초과하는 경우 별도 좌석 구매</p>	 <p>대한항공 세 변의 합 115cm 이하 무료, 초과하는 악기의 경우 별도 좌석 구매</p>	 <p>아시아나항공 세 변의 합 115cm 이하 무료, 최대 높이 155cm(첼로 케이스는 150cm 이내)까지 별도 좌석 구매</p>
<p>무게가 36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영국항공 British Airways의 반입 가능한 수하물의 최대 높이는 140센티미터다. 120센티미터가량인 첼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카네 메이슨의 사례처럼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연주자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p>	<p>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벌금 150유로(한화 약 22만 원)를 물었다. 더블베이스 연주자들은 이에 익숙하다. 대형 악기 소지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 설문조사(PROFEDIM 실시, 2024)에 따르면, 39%는 탑승 거부를 당했고, 70%는 벌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그중 50%는 벌금을 반복적으로 내고, 63%는 벌금이 연주비의 50~10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넣어 전용 공간에 보관하는 조건이다. 독일의 도이체 Bahn Deutsche Bahn의 경우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면 크기에 상관없이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승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붐비는 시간을 피하기를 권고한다.</p>
<p>2018년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 미르나 헤르조그 Myrna Herzog는 알리탈리아 항공 Alitalia에서 추가 좌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에 어쩔 수 없이 악기를 수하물로 부쳤다. 비행 후, 1708년 제작된 이 악기는 앞편의 반쪽이 부서진 상태로 도착했다. 2022년 독일의 루프트한자 Lufthansa는 위탁 수하물 칸에 실린 금관악기 7대를 분실했다.</p>	<p>심하게는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파리 오케스트라의 더블베이스 단원 스타니스라스 쿠친스키 Stanislas Kuchinski는 앙상블 단원들과 TGV 일등석에 탑승했다가 출발 직전 쫓겨났다. 더블베이스를 소지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5시간 30분을 운전해 공연 시작 전 겨우 도착했다. 이미 대형 악기의 기차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청원 참여자는 5만 명에 달했다.</p>	<p>우리나라도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KTX의 경우 규정상 승객 1인당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2개의 휴대품을 소지할 수 있다.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엄격하게 크기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요즘 승객의 골프 가방 휴대가 늘며 중대형 휴대품에 관대해지기도 했다고. 추가 좌석을 구매하지 않은 악기 소지자는 객실 양끝에 남은 공간에 악기를 세우거나, 특실의 짐칸 옆 1인석 등 유휴 공간에 악기를 적재하려 노력한다. 지하철 역시 총합 158센티미터 이내의 짐만 허용하지만,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소지 시 1만 원, '휴대 제한품'의 경우 5천 원으로 벌금이 현저히 낮다.</p>
<p>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악기가 항공사 보상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항공사들은 개인 악기 보상이 필수라고 명시하며, 위탁 수하물로 악기를 부칠 경우 면책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위탁이 의무인 대형 악기 연주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악기를 빌리기도 한다.</p>	<p>다행히 대중교통은 공사사업인 만큼 사안이 개선되기도 한다. 2016년 첼로를 멘 학생의 지하철 탑승을 저지했다가 질타를 받은 홍콩 지하철의 경우, 대형 악기 탑승 사전 등록제를 신설했다. 악기를 등록한 사람들은 해당 악기를 들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프랑스 공공철도회사 SNCF는 2024년 7월 더블베이스 반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라벨이 부착된 소프트 케이스에</p>	<p>악기를 멘 연주자들은 교통수단에 탑승하기 전부터 진을 뺐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자동차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교통 분야. 모두가 조금씩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답일까. 자가용이 없는 것이 이들의 죄가 아니며, 이들이 등에 멘 악기도 십자가가 아니다.</p>





서울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1인당 연 14만원)

사용처

전국 문화누리 가맹점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분야)

발급·이용기간

- 발급기간 | 2025.02.03.(월) ~ 2025.11.28.(금) *예산 소진시 조기발급 마감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5.12.31.(수)까지

발급방법

인근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신청 (www.mnuri.kr)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일깨우고, 꿈꾸게 하는 시간의 정원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음악이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
 동시대적 고전 읽기
 혹시 당신, '염소 선생님'은 잊은 건가요?
 스크린 너머의 세상
 어느순간 공포로 다가온 '자연의 섭리'
 삶의 책장을 넘기며
 나의 진짜 새해소망은

일깨우고, 꿈꾸게 하는 시간의 정원

박이현 럭셔리 매거진 피쳐 디렉터

지난했던 겨울의 끝자락, 머리와 마음을 정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정원이 열린다. 《탐닉의 정원》, 《미셸 앙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아트 주얼리 The Art of Jewellery: 고희의 보석, 매혹의 시간》은 흑백의 명료함, 생동하는 색채, 그리고 꿈같은 이상을 통해 정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감각을 일깨우며,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이 전시들은 정원을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상을 투영하는 창으로 탈바꿈한다.

얼마 전, 길 위에서 하염없이 내리던 새하얀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을 때 눈앞에 있던 피사체가 무채색의 잔상으로 날카롭게 다가온 순간이 있었다. 고백하자면, 아주 잠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 사실. 아마 '시력에 문제가 생겼나?'라는 불안감 탓이겠지. 그러나 눈이 본래의 색을 되찾고 마음이 평안해지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끔은 흑백의 명확함이 머리와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복잡한 일상을 치유하는 열쇠가 될 테니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진행 중인 김병호의 《탐닉의 정원》(2월 8일까지)은 단순함이 주는 평온함을

오롯이 체감할 수 있는 풍경을 펼쳐 보인다. 화이트큐브 안에 무채색 금속들이 꽃망울마냥 자리잡은 작가의 작업은 현대 사회의 일면을 투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박미란 아라리오갤러리 팀장은 “김병호의 조형언어는 기계 문명과 자연 세계의 원리를 섬세하게 중첩한다. 인위적 공정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형의 최소 단위들은 세포가 생명체를 구성하듯 형상이 되고,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듯 복합적 풍경을 구축한다”고 덧붙인다. 전시장을 수놓은 15점의 조각은 탄생의 찰나를 정지시켜 놓은 모양새다. 예컨대, 아홉 개의 단면이 반사와 투영을 주고받는 〈아홉 번의 관찰〉²⁰²⁴과 산발하는 타원형 구체로 이뤄진 〈57개의 수직 정원〉²⁰²⁴은 세상의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존재의 역동성을 묘사한다. 또 가느다란 금빛 가시들이 솟아오른 〈323개의 가시〉²⁰²⁴는 지금을 살아가는 혹은 이겨내려는 우리의 움직임과 묘하게 닮았다. 그래서일까. 《탐닉의 정원》은 1차원적인 형태의 미학을 넘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읽힌다. 다시 말해,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뜻.

《탐닉의 정원》이 흑백의 명료함으로 세태를 짚어보게 한다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 《미셸 앙리: 위대한 컬러리스트》(3월 16일까지)는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통해 보는 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각을 일깨운다. 전시는 그야말로 ‘꽃에 의한, 꽃을 위한, 꽃의 자리’다.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꽃으로 가득한 전시실은 금속이 주는, 계절이 내뿜는 냉기를 온기로 감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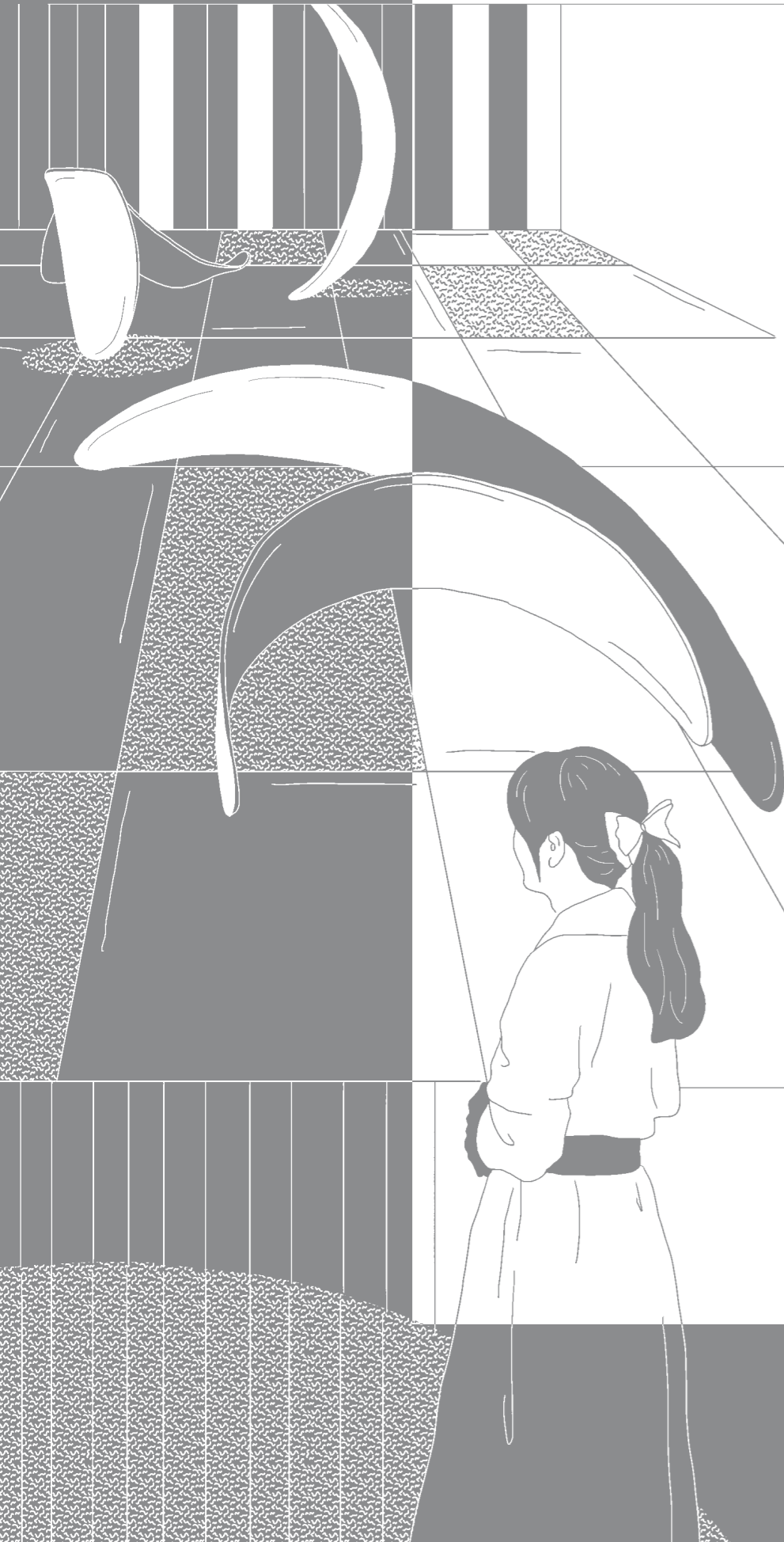
관객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꽃과 함께 보냈다. 꽃의 색, 향기, 그들의 생명력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컬러는 꽃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꽃을 자주 그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 꽃의 색이며, 꽃의 표정에서 향기도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작가의 말마따나, 미셸 앙리 Michel Henry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채로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작품(〈에펠탑과 아이리스〉, 〈이즈미르에서의 정박〉, 〈파트리시오의 창문〉 등)은 창가에 놓인 꽃병과 창밖의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진 까닭에 자연과 인간이 가진 조화와 생명력을 탐구한 화법의 결정체로 평가받는다. 특히 꽃잎을 표현한 입체적인 마티에르 *matière*와 평면적으로 처리된 주변부의 대조는 꽃의 생명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감각적 깊이를 더한다. 이와 같이 꽃을 강조한 미셸 앙리의 기법은 감동적인 경험을 끌어내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존재의 아름다움과 삶의 가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롯데뮤지엄의 《아트 주얼리: 고희의 보석, 매혹의 시간》(3월 16일까지)은 앞선 두 전시와는 다른 차원의 정원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이곳은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그리는 비밀 공간이다. 보석이 주인공인 이 빛나는 정원은 고대와 현대, 자연과 인간의 교차점과 다름없다. ‘에카테리나 2세와 17~18세기 유럽의 주얼리’, ‘아르누보’, ‘벨 에포크’, ‘아르데코’ 등으로 구성된 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라이빗 주얼리 컬렉션이자, 가장 중요한 역사 주얼리 컬렉션’으로 불리는 아리카와 카즈미 Kazumi Arikawa 컬렉션 208점을 선보인다. 5천 년에 걸친 인간의 예술과 역사를 품은 컬렉션은 인간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 건축가 쿠마 겐고의 디자인은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는다. 그는 밤하늘에 흩어진 별을 떠올릴 수 있도록 무광 텍스처와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 보석의 디테일과 광채를 극대화했다. 더욱이 입구 로비에는 보석의 결정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오브제를 설치해 빛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는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이에 따라 관람객은 반짝임으로 점철된 유토피아를 상상하게 된다. 고뇌와 고통이 사라진, 오로지 희망과 환희로 가득한 그런 세계를.

전시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주요 작품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3세의 시그넷 반지, 르네상스 거장 발레리오 벨리의 십자가,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식 지란돌 귀걸이, 나폴레옹이 바사노 공작에게 선물한 카메오 브로치를 꼽을 수 있다. 인간의 이상과 아름다움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형태를 갖추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 이토록 매력적인 《아트 주얼리: 고희의 보석, 매혹의 시간》을 보노라면, 전시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중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이 선물한 원석이 인간의 손을 거쳐 예술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희망과 아름다움이 완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닐는지. 그렇기에 전시는 꿈에 그리는 정원처럼 잠시나마 이상적인 세계를 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음악이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그래픽 노블 Graphic Novel’의 세계를 아시는지. 1964년 미국의 만화비평가 리처드 카일 Richard Kyle이 명명한 장르인 그래픽 노블은, 소설만큼 길고 복잡한 스토리 구조와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그림을 특징으로 한다. 나는 이 그래픽 노블이 음악가의 전기물에 탁월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을 『음과 음 사이에서 Between Two Sounds: Arvo Pärt's Journey to His Musical Language』 2024를 읽으며 다시 한번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작가 요나스 실드레 Joonas Sildre가 작곡가 아르보 파르트 Arvo Pärt를 7여 년간 곁에서 지켜보며 기록한 책이다.

그래픽 노블에 처음 관심을 두게 된 건 『글렌 굴드: 그래픽 평전』 2016을 통해서였다. 글렌 굴드의 음반이나 연주 영상뿐 아니라 인터뷰집, 다큐멘터리 영상물까지 나름대로 섭렵하며 그의 음악세계를 만끽하던 나는 그의 그래픽 노블을 읽고 완전히 반해버렸다. 이 형식은, 음악이라는 추상예술이 시각화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재미를 선사할 뿐 아니라

정적인 흐름으로 사유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때로는 색감으로, 때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음악이 피어나고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픽 노블 안에서 음악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도형이 되기도, 선이 되기도 한다.

『음과 음 사이에서』 또한 개념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와 문장들로 읽는 즐거움을 준다. 아르보 파르트의 어린 시절부터 음악가로서의 철학, 종교관, 강압적인 당대 사회 배경 속에 변화해가는 삶의 방향성까지 착실히 기록한다. 작곡가에게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영감이 곡이 되는 과정, 음악에 깃든 상징들, 그것이 듣는 이에게 전달되는 과정 등이 흥미롭게 기록돼 있다. 커다란 판형의 묵직한 양장본을 천천히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면 아르보 파르트의 음악세계를 온몸으로 들어낸 기분이 든다.

아르보 파르트는 현존하는 여러 음악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곡가로 손꼽힌다. 그의 음악은 클래식 연주회장의 프로그램에도, 대중 영화나 광고에도 이름을 올린다. 1935년 에스토니아 태생의 파르트는 젊은 시절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음악 작품을 선보이다 점차 단순한 요소, 엄숙한 분위기의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나갔다. 파르트 스스로 이름 붙인 ‘틴티나블리 Tintinnabuli’ 작법은 종이 울리고 난 후에 남아 있는 공명, 즉 잔향을 활용해 미니멀 음악을 완성하는 표현 방식이다. 파르트의 종교적 성향, 영적인 감수성을 내포한다.

책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크레도’, ‘실렌티움’, ‘타블라 라사’의 세 장, 그리고 에필로그 격의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폭음 속에 피아노를 연주하던 소년이 탈린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에스토니아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운드 엔지니어 일을 하며 뛰어난 작곡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펼쳐진다.

첫 장의 제목인 ‘크레도 Credo’는 파르트가 1968년에 네메 예르비 지휘로 첫선을 보인 곡으로, 그의 커리어에서 주요한 변곡점을 이룬다. 바로크 시대 합창음악에서 영향받은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거대한 규모로 쏟아지듯 아우성치다 종국에는 가장 단순하고도 영적인 하나의 지점에 가닿는 흐름을 보인다. 초연 현장의 생생한 묘사, 이후 밤의 눈 내리는 기차 위 풍경, 당대 소비에트 동맹 관리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며 작곡가의 고독한 번뇌를 상상하게 만든다.

책의 2장 ‘실렌티움 Silentium’은 ‘고요한 silence’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며, 3장 ‘타블라 라사 Tabula Rasa’는 ‘깨끗한 석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라는 뜻이다. 파르트는 1977년 2악장 구성의 실내악곡 ‘타블라 라사’를 발표했고, ‘실렌티움’은 그 2악장의 소제목이다. 책의 후반부는 파르트가 음악가로서 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상태, 즉 말씀 그 자체로의 소리,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존재의 본질을 되뇌는 ‘침묵’의 노래에 관해 깊이 있게 다루는데 집중한다. 앞선 ‘크레도’처럼 ‘타블라 라사’는 작곡가 아르보 파르트의 음악세계를 논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실렌티움’의 마지막 부분,

각 성부가 차례로 노래를 마치고 더블베이스가 마지막 한 음을 피아니시모로 연주하고 나면 악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마디가 몇 마디 이어진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떠한 정신적인 상태를 들려준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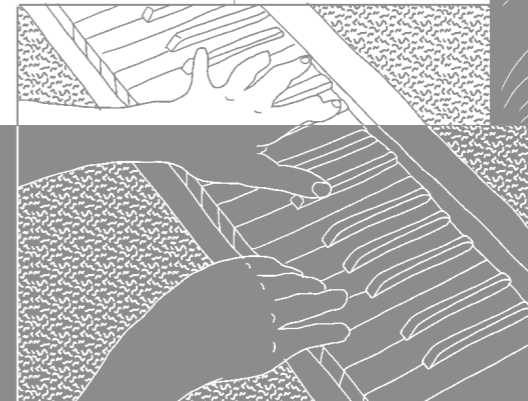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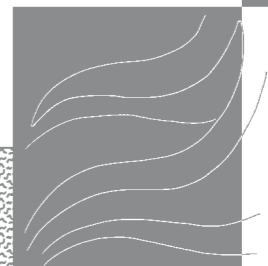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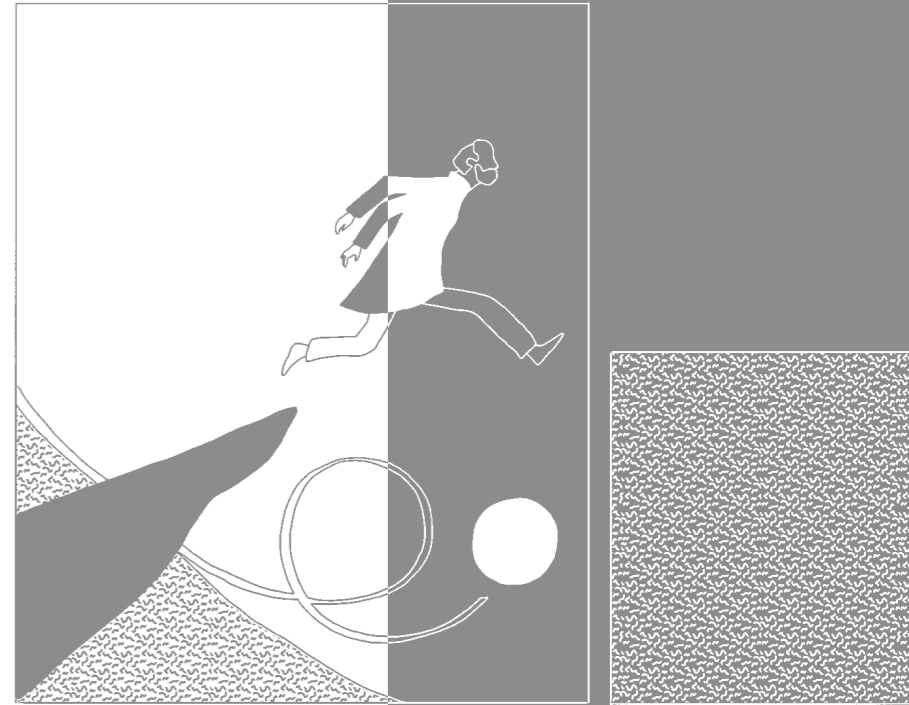
아르보 파르트 플레이리스트

인간은 소리의 창조자가 아니라 매개자다. 돌 속에 존재하는 조각품을 조각가가 깎집어내듯 음악은 작곡가 없이도 우리 세상에 존재한다.

『음과 음 사이에서』, 135쪽

그의 작품 중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거울 속의 거울 Spiegel im Spiegel’이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주곡으로, 앞의 멜로디를 거울처럼 뒤따르며 끝없이 반복되고 그러면서도 중심음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영화 <그래비티>, <어바웃타임> 등에 수록된 바 있다. 이 외에도 ‘형제들 Fratres’, ‘알리나를 위하여 Für Alina’ 등이 듣는 이들을 내면 깊숙한 곳으로 침잠하게 한다.

더 많은 위대한 생존 음악가들이 그래픽 노블로 기록되면 좋겠다. 이뤄낸 성과를 나열하는 영웅화 방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일상을 보살피며, 내면의 불꽃을 잘 다스리며,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며 나아간 음악가들이 창조적인 관점으로 쓰이면 좋겠다. 그것이 음악이라는 커다란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혹시 당신, '염소 선생님'은 잊은 건가요?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광장에 있는 동안만 안도할 수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 한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계엄의 시간은 짧았으나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했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던 순간엔 정신이 아찔하여 휘청거릴 지경이었다. 국회의원이 투표를 거부하다니! 어느 정치평론가들처럼 손쉽게 조소하며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어떤 인물이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 행동의 동기를 찾는 것이 연극작업자의 일. 나는 묻기로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토록 무책임한 행동을 강행하면서까지 저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보수주의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유 체계일 터, '보수주의'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유', '반공산주의', '질서와 전통' 등 보수주의를 설명하는 개념어로는 현재를 설명할 수 없을 듯했다. 게다가 이런 단어들은 끝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곤 하지 않던가. 공통의 언어가 절실했으나 그것이 '문과의 언어'는 아닐 터였다. 대안적 설명을 찾다, 인지과학의 언어를 마주했다. 영국의 스타 과학자 한나 크리츨로우 Hannah Critchlow에 따르면, 뇌 스캔 영상으로 사람의 정치 성향을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뇌 자체가 다르게 생겼다는 것. 일반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예민한 편도체를 갖고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위협의 인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호를 염두에 두고 행동"(*『우명의 과학』* 2020)하게 된다는, 알쏭달쏭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다.

끝내 나는 설명할 논리를 찾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했을 리 없을뿐더러 계엄을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역사에 무지할 리

없으며, 보수주의가 무엇이든 그것이 직무 유기의 근거일 수는 없을 터였다. 수백 년 동안 쉽없이 개선돼온 정치철학, 보수주의가 그렇게 시시한 것일 리 없지 않은가. '한때는 마음을 빼겨 삶의 중심에 두었던 어떤 신념이 있었으나 이제는 설렸던 기억조차 흐릿해져 그저 살고 살아남는 일이 전부인 삶의 행보'라는 편이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듯했다.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가. 실로 이야기의 역사에서 어떤 인물이 지금의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한 존재나 계기를 망각한 채 그저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안위만을 살피기 급급한 경우는 흔하다 흔하다. 나는 유독 이런 서사 전개에 크게 낙심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이었던 작품은—때마침 영화로도 개봉한—뮤지컬 <위키드 Wicked>였다.

뮤지컬 <위키드> 2003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고전 판타지, 라이먼 프랭크 바움 Lyman Frank Baum의 <오즈의 마법사 The Wonderful Wizard of Oz> 1900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매과이어 Gregory Maguire의 동명 소설 1995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11월 말 영화로 개봉한 1막의 줄거리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타고난 초록색 피부 때문에 외톨이로 살아온 엘파바가 탁월한 마법 재능으로 쉬즈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하다가, 위협에 처한 동물들을 구명하기 위해 찾아간 에메랄드 시티에서 '오즈의 마법사'의 계약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 즉 남다른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오다 남달리 뛰어나다는 이유로 세상에

받아들여질 기회를 얻었으나, 또다시 남과 다른 몸을 살피는 마음 때문에 '사악한 마녀'로 낙인찍혀 추방되는 존재, 엘파바가 바로 <위키드>의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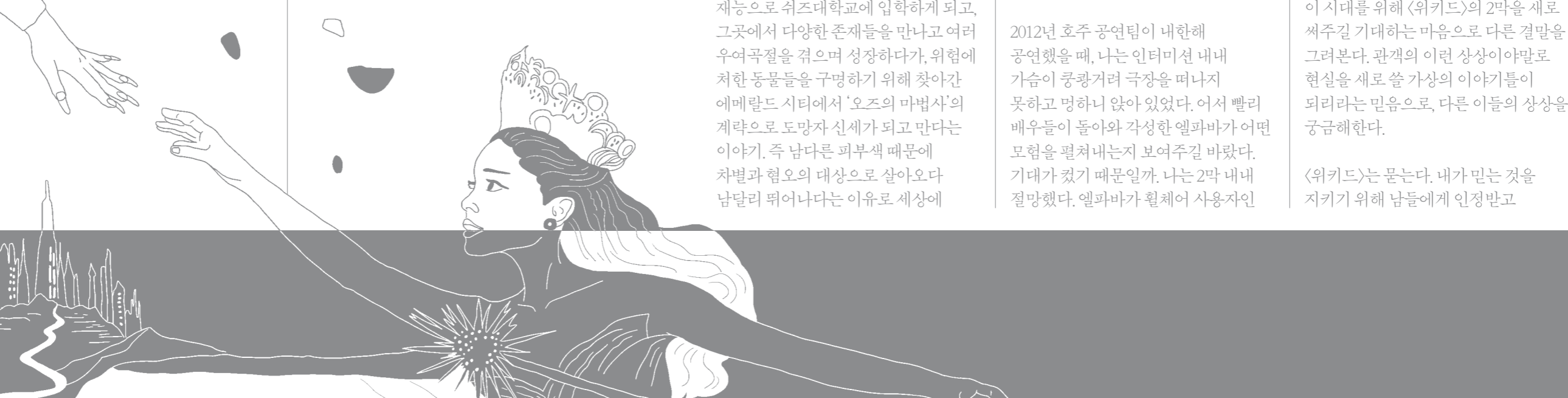
가장 유명한 넘버이자 1막의 마지막 곡인 '중력을 넘어서 Defying Gravity'에서 엘파바는 노래한다. "뭔가가 달라졌어. 내 안에 무언가, 이제 의미 없어. 남들이 정한 규칙들. 난 깨어나버렸어. 돌아가긴 늦었어. 내 직감을 따를래. 눈을 꼭 감고 날아올라 중력을 벗어나 하늘 높이 날개를 펼 거야. 날막을 순 없어." 기실 엘파바는 많은 일을 겪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스승을 만났고,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글린다와 친구가 되었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쓰이는 이성 피에로가 생겼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녀를 각성시킨 것은 '염소 선생님' 닥터 딜라몬드였다. 자신처럼 남과 다른 몸을 가진 '염소 선생님'은 엘파바의 첫 친구가 돼주고, 동물을 배제하고 제거하려는 거대한 음모에 대해 들려주며, 엘파바의 눈앞에서 난폭하게 체포된다. 1막의 마지막, 동물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흘려진 오즈인의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무능한 통치자, '오즈의 마법사'에게 저항하겠다고 그녀가 선택하는 것은 '염소 선생님'과의 만남이 남긴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때문이다.

2012년 호주 공연팀이 내한해 공연했을 때, 나는 인터미션 내내 가슴이 쿵쾅거리 극장을 떠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서 빨리 배우들이 돌아와 각성한 엘파바가 어떤 모험을 펼쳐내는지 보여주길 바랐다.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 나는 2막 내내 절망했다. 엘파바가 휠체어 사용자인

동생 네사로즈를 마법으로 걷게 하고, 피에로와 도주해 사랑을 나누며, 그를 두고 글린다와 반목하다 중국에는 화해하는 2막 내내 하품이 나왔다. 고작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엘파바는 중력을 거슬러 비상하던 엘파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엘파바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그녀는 '염소 선생님'은 완전히 잊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선택만을 이어가는 듯 보였다. 그녀를 그녀로 변화시킨 존재를, 그가 남긴 찬란한 사유를 망각한 듯 보였다.

기실 매과이어의 소설 속에서 에메랄드 시티에서 도주한 엘파바는 레지스탕스로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대항하다 죽음을 맞는다. 피에로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피에로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해 그녀를 막으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한다. "너를 사랑해. (...) 하지만 내가 반대해봤자 나를 막을 힘은 없어." (*『위키드 1』* 2008) 그녀는 그녀로서 살고, 그녀로서 사랑하다, 그녀로서 죽는 것이다. 뮤지컬이 원작 소설과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염소 선생님'을 기억하는 엘파바라면 얼마나 별나고 이상하고 매력적인 사랑과 우정을 이어갈지 궁금할 뿐이다. 매과이어가 바움을, 뮤지컬이 소설을 고쳐 썼듯, 영화가 이 시대를 위해 <위키드>의 2막을 새로 써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결말을 그려본다. 관객의 이런 상상이야말로 현실을 새로 쓸 가상의 이야기들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다른 이들의 상상을 궁금해한다.

<위키드>는 묻는다. 내가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기회를 포기할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글린다의 노래처럼, ‘인기popular’는 좋다. 더욱이 다른 이들에게는 몰라도 가족·친구·연인에게만큼은 사랑받고 싶어 끊임없이 주저하는 엘파바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허나 정치인이자라면 마땅히 자신보다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보수주의에 대해 찾아 읽다 한 미국 보수주의 정치인의 소개 문구에 마음이 설렸다. “적당한 타협 대신 철저한 원칙을 제시하며, 기꺼이 정치적 과멸을 감수[하어] 보수주의의 혼을 흔들며 깨[운] ‘가장 영향력 있는 낙선자’라니(박종선 역, 『웁긴이의 글』, 『보수주의자의 양심』2019). 나는 이야기에서도, 우리의 현실 정치에서도 이런 문장을 내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함께 믿고 싶을 것이다.

어느 순간 공포로 다가온 ‘자연의 섭리’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유행을 따르는 초상화가는 예의를 차린 아침꾼과 같다고 마크 로스코는 썼다. 그렇다면 인간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현대의 사진이나 영상은 어떨까. 보정을 완벽하게 마친 사진이나 보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얼굴과 몸을 드러내는,

모든 세부가 매끈한 영상들. 대중을 상대하는 이미지의 태반을 차지하는 흠 없는 이미지들. 마크 로스코는 광고 예술가들의 예술은 광고주의 내면을 파악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어 말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이미지들 역시 광고 이미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피부를 주름 없이 유지하는 법, 울퉁불퉁한 허벅지를 매끈하게 하는 법, 여기를 깎고 저기를 다듬고 이상적인 외모로 사진을 보정하는 법. 언제나 즐거운 일만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구독자가 많아지면 실제로 광고 계정(‘팔이피플’이라 불리는, 자기 계정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실제 나이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박은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곤 한다. 남에게 보이는 일을 업으로 삼은 여성이라면 그 강박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할리우드 배우 엘리자베스 스콧(데미 무어 분)은 현재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마치며 “자신을 아껴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 엘리자베스가 그 자신의 삶을 아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어느새 다가온 50번째 생일은 엘리자베스에게 기대보다는 불안을 안긴다. 나이 든 엘리자베스에 적대적인 프로듀서의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된 후, 그나마 기대고 있던 에어로빅 강사로서의 커리어도 끝나려는 기미를 보인다.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던 도로 광고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자동차가 많이 부서졌지만 정작 엘리자베스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녀는 수상한 쪽지를 발견한다. 도통 신뢰할 수 없는 약물 암시장을 통해 ‘더 나은 나’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접한 엘리자베스는 약물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다. 엘리자베스의 (마치 원피스 등의 부분에 달린 지퍼를 내린 것처럼 깨끗이 절개된) 등을 가르고 몸속에서 빠져나온 것은 젊고 아름다운 분신 수(마거릿 켈리 분)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다. “각자 7일씩 균형을 유지한다. 명심할 한 가지, 당신은 하나다.”

엘리자베스와 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각자가 7일의 시간만을 가질 수 있다.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코랄리 파르자 Coralie Fargeat 감독의 영화 <서브스토포스 The Substance>는 그 ‘어떻게’의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준다. 수는 엘리자베스로서의 자의식(초로 여성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여성이다. 50세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가 하고 당한 에어로빅 프로그램의 새 진행자로 발탁된 수는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섹스를 하는 등 자신의 시간을 한껏 즐기려고 한다. 7일이 지나고 엘리자베스가 의식을 찾으면 수가 그동안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를 씩씩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7일간의 균형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수가 시간을 ‘더’ 원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7일을 활동하고 7일을 공백으로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는 커리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 수는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엘리자베스의 체액을 자신에게 주입한다. 문제는 뒤늦게 깨어난 엘리자베스에게 생긴다. 수가 누린 시간만큼 엘리자베스는 가속 노화한다. 잔뜩 붓고 주름진 손가락을

보고 경악하기도 잠시, 엘리자베스의 머리가 빠지고 관절이 굳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수에게 복수하기로 한다. ‘당신은 하나다’라는 말처럼, 엘리자베스가 과식하자 수는 몸매에 변화가 생겼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7일은 젊은 나로, 7일은 원래의 (나이 든) 나로 보내게 해주는 약물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시간의 이상적인 균등 분배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엘리자베스와 수의 생활은 ‘당신은 하나다’라는 말이 섬뜩한 예언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까지 악화 일로를 걷는다. <서브스토포스>는 보디body 호러인데, 보디 호러는 공포 영화 중에서도 인체의 훼손이나 변형에 중점을 둔 하위 장르를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으로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플라이 The Fly>(1958년과 1986년 두 번 영화화됐다)가 있는데, 순간이동장치를 만든 과학자가 실험 중 사고로 파리와 DNA가 섞이면서 괴물로 변하는 내용을 다루는 식이다.

그런데 <서브스토포스>의 보디 호러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해당하는 ‘노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절대명제로 삼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속돼 살아온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언제든 수의 시간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제 자기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능성이 수에게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늙고 추해진 자신의 시간을 홀대하는 것은 수만큼이나 엘리자베스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서브스토포스>를 슬프게 한다. 여성이 자신을 학대하는 방법으로서의 과식 역시 흥미롭다. 밤늦게 음식을 잔뜩 먹고 집을 어지럽혀 두고 잠들면, 이튿날의 나는 전날의 나를 혐오한다는 자기혐오의 원리. 여성들이 자기를 망치고 괴롭히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식이장애를 떠올려 보라. 거식증과 폭식증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통제와 자기혐오라는 엔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에, 비가역적인 노화가 끼어들어진다.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 없다는 공포. 영화의 마지막, 엘리자베스와 수가 합쳐진 엘리자수의 등장 장면은 보디 호러의 전형으로 보이지만 <서브스토포스>를 이루는 심리적 공포의 근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라는 점이 섬뜩하다. 당신은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진짜 새해 소망은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또다시 한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365일이 온전히 주어졌다고 표현하곤 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순전한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느끼지 못하는 새에 우리에게 따르는 엄청난 행운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새해가 되면 부쩍 죽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잘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보면 결국 '웰다잉(well-dying)' 즉, 잘 죽는 법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죽음에 관한 대화가 여전히 터부시되는 우리 문화에서, 모두가 새해 복과 안녕을 빌 때 '무슨 말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상시로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복은 복대로 빌되 혼자 있을 땐 책을 펼쳐 들었다. 모처럼 눈에 띈 신간 『죽음 공부』^{2024 (박광우 저, 흐름출판)다.}

이 책은 20년 넘게 신경외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로 지내고 있는 저자가 환자 곁에서 목격한 죽음의 다양한 장면을 전하며, 의미 있는 오늘을 위해 우리가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한다. 아무래도 저자의 전공이 그렇다보니 응급실처럼 급박한 죽음 앞에서의 사투보다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주어지는 암이나 파킨슨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아주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처음부터 정신을 바로잡고 이별 준비를 단정하게 할 리 없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그래서 대부분은 허둥댄다. 반드시 후회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할 행동을 하거나 환자와 보호자가 싸우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이런 말을 건넨다. 나올 수 있으니 힘내라는 기약 없는 말 대신, 남아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이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끝은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당장 어머님께 잘하셨으면 합니다. 좋아지고 나아질 미래의 어머니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면서 쇠약해진 지금의 어머니께 더 자주 연락하고 위로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행을 간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었으면 합니다.

『죽음 공부』, 155쪽

전문가의 직언은 허둥대는 보호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나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 있다. 9년 전, 아빠의 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눈으로 보이는 건 전부 제거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나머지는 이제 운명에 맡겨봅시다. 혹시 재발이 있더라도 그때 또 해결하면 돼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딱 그 앞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이 말만큼 힘이 되는 게 없었다. 아주 냉정하지만, 그래서 위안이 됐다. 당사자든

보호자든 후회하려야 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었으니까. 이런 의사의 조언을 듣고도 환자와 보호자는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할 수 있는 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이든 당시의 최선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죽음의 모습과 사연이 다양하듯 그 앞에서의 자세도 정답이랄 건 없으니까.

저자는 이러한 직언에 더해 의사로서 따라야 하는 현행 의료법이나 현장 상황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다. 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기게 된 이유,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생각, 서울의 '빅5'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까닭, 그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등... 대학병원 1분 진료는 남 이야기 가 아니다. 정말로 그랬다. 3개월 전에 다음 진료 날짜를 잡고, 그 날짜가 되면 아빠는 새벽 기차로 서울에 왔다. 병원에도 도착해서도 한참 기다려 들어가면 진료는 길어야 3분이었다. 그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든 건 절대 아니지만(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대기실을 보고 있으면 서운함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우리 가족은 의사만 바라보고 신처럼 받들고 있는데, 이분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고 이따금 상상하곤 했다. 수술도, 진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이었는데도 말이다. 책에 쓰인 저자의 생각들은 참 막막했던 과거의 내게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을 만큼 든든해지는 내용이었다.

요즘 들어 30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 내 나이가 참 좋은 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몸도 아주 젊고, 조사보다는 경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부모님도

노인으로 불리기엔 장년의 느낌이 조금 더 짙을 때.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되는 시절 말이다. 하지만 본가에 갈 때마다 저번보다 주름이 깊어진 부모님을 마주할 때면 인생에서 나만 잘 챙기면 되는 시절이 그리 길게 남지 않음을 깨닫고 불현듯 두려워진다. 해를 거듭할수록 죽음과 건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강해진다. 허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시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기에, 정말로 그 시기가 닥치면 무척 허둥댈 것이 분명하기에, 요즘 같은 시절에야말로 죽음에 관해 바짝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공부는 혼자 하면 재미가 없다. 당장 써먹을 거 같지는 않아서 느슨하게 읽게 될 테니 말이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양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면 좋겠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미국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려 드는 것만큼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죽음의 순간이 내게,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닥치거든 그간의 배움이 무색할 정도로 해매겠지만, 아예 모를 때와는 분명 다를 테다. 끝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 끝에 다다르기 위한 앞선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우리는 끝을 잠시 이야기했을 뿐인데 살아가는 방식과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가고 있다. 이 사실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기를. 늘 끝을 염두에 두고서 이 여정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디디며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나의 진짜 새해 소망이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EPILOGUE

해마다 연초에 발표되는 라인업을 보며 꼭 봐야겠다 마음먹는 공연이나 전시를 꼽아두는 편입니다. 올해는 벌써 달력에 채워둘 작품이 많아 기대되네요. 겨울의 끝자락, 2월호를 벗 삼아 문화 탐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올해 [문화+서울] 제작을 함께할 식구를 만나기 위해 한겨울에 농사짓는 기분을 만끽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파종을 도와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농사도 대풍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BEHIND THE SCENE

열악한 공간에서도 언제나 멋진 사진!!

손민지 디자이너끼 아트디렉터



CONTRIBUTOR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잡지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연륜이 느껴지는 만들새도 물론 좋지만, 언제나 신뜻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소망을 담아 2월호를 떠나 보냅니다.

김태희 디자이너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5년 서울연극창작센터 시범공연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피스타초



SEOUL M+ SOCIETY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

공연시간
금요일 19:30
토요일 15:00

러닝타임
110분

티켓가격
전석 무료
(선착순 지정석)

예매
서울연극창작센터
-네이버 예약

문의
서울연극창작센터
02-758-1608

단체
극단 공놀이클럽

크레딧

출연 김솔지 남재국 류세일 박은경
무대감독 김동영
조명디자인 이경은
의상디자인 조은심
영상디자인 장주희
그래픽디자인 장원별
조연출 전준구
작가 서동민
연출 강윤구



서동민 작가 데뷔 작품

공놀이클럽 X 서동민



2025.2.7. 금 ~ 2.8. 토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